



동국대학교와 불교대학은 101년 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길 바랍니다. - 불교대 학생회



앞으로도 학교 교육 활동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창의적 공학설계 및 실습' 강의실에서



동국대의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CS경영팀도 태어났습니다. 학교  
에 젊은 기운을 불어넣을 우리 팀 많이 사랑해 주세요! - CS경영팀

## 건학 101년, 우리 모두의 힘!



갈림길에서는 아예 날개를 펴자. 절벽위로 치솟아 백년을 날자.  
-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실용논리' 강의실에서



앞으로도 명문대학교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동국인들에게 체육  
부에 대한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야구부



선배님들의 업과 덕을 이어받아 우리도 역사를 빛낼 수 있도록  
101년을 찬란하게 하는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 한국화과



항상 귀를 열고 학생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 알차  
고 즐거운 수업 만들어 가요! - 교양교육원



101개의 매듭을 딛고 일어나 세계를 향해 포효하자 동국여여!  
- '혼민정음의 이해' 강의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과 기대감을 주는 대학, 실력으로 세계의 중심  
에 설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 나갈 기원합니다. - 취업지원센터



새로운 백년의 시작을 맞이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공과대학이  
되겠습니다. - 공과대 학생회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계에 우뚝 선 동국대학교의 모  
습을 기대해 봅니다^^ - 동국서도회(東國書道會)



우리 건축사진 연구회처럼, 특별하진 않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각별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 건축사진연구회

이사장 101주년 기념사

# 새로운 동국100년을 힘차게 출발합시다



진애하는 동국가족 여러분!  
 신록의 푸른 봄빛으로 가득한 내일은 우리 동국대학교가 개교한지 101주년을 맞이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날에, 먼저 우리 동국대학교의 기틀을 마련하신 구한말 불교계 선각들의 지극한 서원(誓願)과 혜안(慧眼)에 대하여 경의와 흠모를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100년의 역사를 지나 또 다른 100년으로 전진하기 위한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학교운영과 학문적 성취, 그리고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우리역사에 족적을 남기신 역대 모든 동국가족에게 새로운 100년의 힘찬 출발을 고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동국백년의 역사는 영광과 시련, 도전과 좌절을 거치면서 한때는 우리사회의 대학교육을 선도하는 명문사학으로의 자기위상을

을 드날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십 수 년 사이에 사회적 환경과 대학교육 여건변화의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서 동국대학교의 위상이 위협받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동국 100주년을 거치면서 이러한 현실을 재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반전시키고자하는 우리들의 고뇌와 노력도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동국도약이라는 원력을 품으신 오영교 총장님의 고뇌는 그 누구보다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정체는 새백년 동국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담겨있는 '108 프로젝트'로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지하고 있다시피, 108프로젝트는 신(新) 경영 시스템 창출, 교육·연구 시스템 혁신, 최적의 교육·연구 환경 구축, 재정확충 및 건전화, 의학교육 및 병원경영 혁신을 통하여 경쟁시대라 일컬어지는 21세기에 걸맞은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108프로젝트가 교육지표와 교육환경의 개선 그리고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를 통해 내실 있는 민족의 대학, 특색 있는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법인은 동국발전 프로젝트를 위하여 우수한 교수진과 보다 나은 교육·연구 환경 속에서 여러

분이 학문을 연마하고 인격을 도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국가족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오는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다시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없습니다.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영광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동국인들은 지난 100년의 발전을 기반으로 새 역사의 도약이라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07년 우리는 동국 중흥이라는 기회 앞에 서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수·학생 모두가 묵묵히 정진하는 수행자적 용맹과 더불어 중단·재단·동문 여러분의 화합과 단결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화합과 단결의 기운이 성숙되고 모든 동국가족이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동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개교 이래 내외의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와 애교의 일념으로 동국의 오늘을 있게 한 모든 동국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열성적인 성원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동국대학교와 그 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 영 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총장 101주년 기념사

# 건학 101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뻐할 일이 여지 이것만이겠습니까. 내일이면 우리 동국대학교가 건학 101주년을 맞습니다. 다 함께 자축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 100년 역사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100년을 창조하는 그 첫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취임사에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그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대학, 모두가 인정하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두 달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이들이 학교 발전이라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의 개교 기념일은 너무나 먼 천리 여정을 위해 이제 한 걸음을 옮긴다는 마음으로 맞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목표의 절반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경험 많고 지혜로운 우리의 어르신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씀도 준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꿈과 희망, 목표와 이상을 향해 즐겁게 나아가는 마음이야말로 동국정신의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화두로 우리 학교의 미래를 담은 108프로젝트를 실천하

기 위해 지금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분과 요소의 변화가 아니라 동국대학교 전체의 혁신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전진하는 게 혁신의 정신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은 동국대학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가져갑니다. 이 영원한 이름속에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희망의 내용은 의외로 쉽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님은 부단한 학문 연구와 학생들을 위한 최상의 가르침을 제공하며, 직원선생님들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 동국대학교가 발전하는 속도는 매우 빠를 것입니다.

동국인 여러분!  
 이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동국대학교가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힘을 모은다면,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영 교  
 동국대학교 총장

# 건학 101주년 기념 축사

총동창회장 축사

##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 할 한해로



우리 모교 동국대학교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며 창학 101주년의 영광을 맞이하였습니다.

삼보의 정재로 교육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설립된 우리 동국은 1906년 설립된 명진학교를 시작으로 중앙학림, 해화전문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민족의 질곡과 아픔을 같이 한 우리 동국은 건학 정신과 민족정신을 새로이 하여, 이 모든 역경을 이기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대학으로 변화를 거듭하며, 한 세기 동안 20만 명의 동문을 배출하였고 종교·문학·연예·경제·법조·스포츠 등에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영광된 자리의 주인공인 우리 20만 동국인들의 감회와 기쁨은 실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동국인 여러분!  
 동국 중흥의 중차대한 시기인 올해,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경영의 혁신 모델을 만들고 성공신화를 창조한 오영교 총장님을 모시고 동국의 발전을 말짱습니다.

신임 총장님과 함께 건학 101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동국대학교를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시켜야 할 역사적 과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동국의 미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이고도 현실적인 발전전략들이 담겨 있는 동국 108프로젝트를 선포, 이를 착실히 실행하고 있는 모교의 열정과 노력에 발맞춰 우리 총동창회 20만 동국인도 동국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모여, 우리들의 마음의 안식처인 모교를 도와 세계 속의 동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건학 101주년을 모교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더욱 정진합니다.

면학에 몰두하고 있는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국학원 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교 총장님을 위시하여 교수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우리 동국가족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원 용 선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교수회장 축사

## 용맹정진하여 동국역사 발전시켜야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동국은 불교와 민족을 화두로, 명문사학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국난 때마다 호국정신의 지지역할을 해왔던 불교계가 일제강점기의 민족교육을 위해 1906년 5월 8일, 근대적인 불교교육기관인 명진학교를 설립한 것이 오늘

의 동국역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동국은 일제하에서는 3·1운동을 주도 하였고, 또한 민족을 위한 사회활동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유로 두 번이나 폐교라는 질곡을 겪었던 민족대학이며, 4·19의거 때에는 민주화를 위해 선봉에 섰던 민주대학이였으며, 산업화시대에는 수많은 사회지도층과 산업인력을 배출하는 등 항상 사회중심에는 우리 동국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역사와 저력의 바탕 위에 한 세기를 넘어 오늘 새로운 100년의 시작 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대학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개교 101주년을 축하하는 축제적 마음가짐보다는 구성원 각자가 또 다른 100년을 위해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동국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은 동국의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민족사학으로서의 전통을 이어오신 선배들의 용맹정진 덕분엔 지난 100년의 전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연 또 다른 100년 후의 우리 후학들이 오늘의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의 선배들을 평가하는 만큼 우리를 평가할 것인가를 깊이 고뇌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01년의 생일을 맞이하여 100년의 전통을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각오로 용맹정진하여 우리 후학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동국을 물려줄 역사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국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소임을 충실히 해야 하는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단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대학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교직원들은 충성을 다해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며, 학생들은 자기발전과 동국역사의 계승을 위해 가일층 학업에 정진할 때 우리 동국은 발전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찬 출발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치십시오!

이 중 옥  
 동국대학교 교수회장

직원노조 축사

## 두번째 100주년을 향하여



100주년의 기쁨을 축하하고, 각종 축하행사로 분주했던 동아이가 이제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굳이 인류역사의 발전사를 논하지 않더라도 지난 100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사회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새로운 100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우리 구성원 스스로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우리 앞에 서서히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영교 총장님의 취임이 그러한 우리의 노력을 배가시켜 줄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세기가 넘는 우리 대학의 역사가 빛나는 것은 각각의 소중한 1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1주년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축하해서는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교계 선각자들의 건학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101주년을 지탱해 준 과거 선배님들에 대한 고마움 역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101주년을 새로운 100년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측면에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막중한 짐을 지우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의 첫 한해를 어떻게 쌓는가에 따라 앞으로 쌓여질 99년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어릴 적 두개비 집을 짓는 순수한 마음으로 200주년 동국을 위하여 한해 한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개교 101주년을 축하하고, 미래의 후배들이 우리 대학의 200주년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노동조합원 개개인 모두는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고 싶은 대학, 머물고 싶은 대학,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세계 속의 대학을 만드는 데 무엇일 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앞장서는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건학 101주년을 구성원 모두와 함께 다시 한 번 축하하면서, 동국가족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 기 석  
 동국대학교 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총학생회장 축사

## 새로운 100년을 위한 우리의 자세



동국대학교는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새로운 동국의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흐르는 세월의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며 수많은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했던 과거의 영광은, 현재를 통해 미래를 향한 값진 자부심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101년의 힘찬 포문을 만방에 펼치기 위해 동국대학교는 학생, 교수, 직원의 삼주체 화합은 물론, 동문들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동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동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객관적인 수치에 불과한 대학평가의 순위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성과와 결과 지상주의 생각이 학교 운영의 기초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팽창에 치중하여 내실이 튼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 모두의 조화로운 발전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더불어 학생이 주인되는 대학사회의 구현이 단지 학생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비율의 구성주체인 학생들이 집적 사회의 성실한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인적인 역량의 개발은 물론 스스로의 주인의식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교수님들과 직원선생님들이 학문과 복지분야에서 이를 후원한다면 자연스러운 조화를 통해 진정으로 발전하는 동국대학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 현실 속 동국대학교의 각 구성원들은 계층별 괴리감으로 인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위태로운 향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학교 당국은 등록금 문제 및 학제개편처럼 학교의 결정이 온당하다는 생각으로 일방적인 신뢰만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제관계의 교수와 학생은 정보와 지식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아닌 서로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의 개념으로 괴리감의 차이를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내 유일의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는 그 색채를 심분 발휘하여 그 상징성을 근거로 세계 유수의 대학과 많은 부분에서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바람들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건학 10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정 형 주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 학사편제 및 정원조정안 발표

## 폐과·트랙제 도입 논란 ... 14일 개편안 확정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될 학과편제 및 정원조정안이 지난달 20일 발표되었다. 이번 조정안은 △독어독문학과와 북한학과의 폐과 △불교대, 문과대, 사과대, 공과대, 나노정보대학 5개 단과대에 대한 110명의 정원 감축 △인접 학문 간의 협력을 위한 트랙제 도입 △BT, NT, IT, CT 분야의 특성화를 위한 단과대학 신설 및 명칭변경 △단과대학의 개편으로 인한 학과 이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학과편제 및 조정은 대학의 구조 조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지난해 우리학교가 교육인적자원으로부터 구조개혁선도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87억 지원의 조건인 특성화 및 정원감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결정된 이번 학제 개편안은 지난 3월 실질적인 추진단계로 접어들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학사지원본부(본부장=이상일·사회환경시스템공학)는 지난 12일 각 단과대에 학과편제 및 정원조정 기준에 대한 공문을 전달한 후, 이를 구체화한 현재의 조정안을 지난 20일 공개하였다. 학교 측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총장, 학사부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8개 단과대학 교수들과의 간담회, 독문과 학생대표,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 학생회장과 의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 의견 조율이 되지 못한 채, 각 입장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학사지원본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최종수정을 거친 후 이달 14일까지 개편안을 확정지를 예정이다.

### 비인기학과 폐지 논란

이번 조정안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독어독문학과와 북한학과의

폐과 계획이다. 학교 측은 "지난 4년간의 학과정원 대비 재학률(현재 1학년 학생 제외), 졸업률, 한 강자당 투입되는 강의 실 수 등을 고려한 수업 규모, 취업률을 지표로 삼아 점차 사회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되는 두 학과를 폐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업경영의 논리로 대학이 추구하는 학문 영역을 판단하여 학제개편을 하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 트랙제 도입과 실효성

트랙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이번 개편안의 주요쟁점 중 하나다. 현재 몇몇 단과대학에서 실시되는 학부제의 형태는 교양과정인 1학년을 마친 후 전공을 선택해 2학년부턴 학과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트랙제는 교수와 학생의 소속이 학과가 아닌 학부로 바뀌고, 각 학부 내에서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학생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트랙에 맞춰 강화를 이수하고 그에 따라 4학년 2학기에 전공이 정해지는 시스템이다. 학교 측은 트랙제 도입 배경에 대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폭을 넓히고, 인접학문 간의 협력을 유도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반해 "수위 좋은 학점을 받기 쉬운 수업에만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전공학문의 전문성 결여가 발생할 것"이라는 염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번 트랙제 도입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 곳은 이과대, 생자대, 공과대, 정산대 등 자연계열 단과대학 4곳이다. 생자대와 정산대가 각각 바이오대학과 나노정보대학으로 개편되면서 4개 대학 소속 학과의 학문분야 개편과 단과대 이동변화가 많다. 자연계열의 트랙제 도입 계획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대학 바이오학부=생명과학,

농생명공학, 환경생태학, 의생명공학(신설), 식품공학 트랙 △공과대학 건축공학부=건축공학, 건축학 트랙 △나노정보대학 나노반도체과학부=나노과학, 반도체 과학 트랙 △나노정보대학 전자정보공학부=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트랙이다.

### 학제개편안 세부 변화

한편, CT특성화를 위한 영상미디어대학의 신설도 눈에 띈다. 자연계열 외 트랙제 적용 도입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불교대 불교학부=불교학, 인도철학, 선학, 사회복지학 트랙 △문과대 철학윤리문화학부=철학, 윤리문화 트랙 △문과대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 영어통번역 트랙 △사과대 경제통상학부=경제학, 자원경제학, 국제통상학 트랙이다.

또한 현재 예술대학에 속해 있는 공연예술학과와 문예창작학과가 영상미디어 대학으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예술대학이 사라지게 되며, 미술학부는 독립학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학과편제 및 정원조정안에 대해 오영교 총장은 지난 25일 문화교 예술극장에서 열린 '21세기 리더십' 강연에서 "사회적 수요가 적은 비인기 학과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기회비용의 지출이 많아지게 된다"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은 당연한 것이지만, 동국가족 다수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학제개편안이 14일까지 확정될 경우 입학요강확정과 학칙수정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승인이 이뤄지면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반영된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불교종립대학의 '힘' ... 불교 리더십을 갖춘 미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신설된 '불자청년지도자 육성 장학' 간담회가 지난 3일 소피텔 엠베서더에서 오영교 총장, 이사장 영배스님과 수도권 사찰 주지스님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석왕사, 봉은사, 불광사, 진관사, 도선사 등 5개 사찰에서 총 1억 8600만원을 약정했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 CS종합추진계획 발표

## 고객관리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시스템 창출

학생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CS경영 선도대학을 만들겠다는 CS(customer satisfaction) 종합추진계획이 지난 달 발표했다.

오영교 총장이 취임 전부터 내세웠던 이번 계획은 대학 내의 고객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시스템 창출 뿐 아니라 기업·기관이 선호하는 대학 1위로 도약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CS추진을 위한 동력확보 △고객접점 서비스 개선 △고객 관리시스템 구축 △CS경영 조직문화 형성 △CS평가 시스템 구축 등 총 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를 위해 각 행정부서 별로 한 명씩 CS리더를 선발해 CS실천과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우리 학교의 CS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 및 평가를 받기 위해 외부 CS경영 전문가, 동문, 학부모 등 대·내의 고객대표를 약 10인 이내로 선발해 '동국CS경영자문단'을 이달 안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객대응 방식은 고객접점 서비스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CS경영의 구조화로 바뀌게 될 것이다. 민

원처리에 관한 업무와 권한을 부서별로 명확히 해 처리에 소요되는 기준 시간을 단축하고 통합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해 고객 상담에 필요한 표준 응답을 공유하도록 담당자 부재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고객관리경영(CRM)의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불만·의견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각 부서로 전달하게 됨으로써 부서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시스템의 일환으로 '고객의 소리(가칭)'라는 홈페이지를 이달 초 오픈해 열린 총장실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총장과 대화'를 비롯해 △정책 제안방 △칭찬메일 △불편접수창고 △각종 설문조사 등이 마련된다.

우리학교 안의 내부 평가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사회진출도, 대외평가 등의 각종 외부 평가에도 대응하고자 새로운 CS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CS경영이 생

소한 직원들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CS영양 교육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CS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한 내부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만족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도 시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공직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CS선포식을 이달 말에 열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인사담당자들과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학교는 각 기업·기관이 선발하고 싶은 인재상을 가장 잘 파악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망이다.

CS종합추진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CS경영팀의 박서진 팀장은 " 그동안 대학에서 관심 갖지 않았던 '고객만족'이라는 개념을 우리학교에 도입할 수 있다"며 "우리학교가 대학내 CS경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학내구성원 참여를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kvi26@dongguk.edu

### 오는 10일 대중법회 열려

오는 10일 오후 4시 정각원(원장=박종호)과 총학생회(회장=정형주·통계4) 주최로 '일만삼천 동악인을 위한 대중법회'가 중앙강당에서 진행된다. 오영교 총장이 연사로 참여하는 이번 법회는 상대적으로 교직원들의 참여가 많았던 기존의 법회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관심을 끌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5월중에는 수계 대법회, 연등 점등식, CBM 페스티벌, 연등 축제 등 정각원 주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법과대 김용길 동문 장학

법과대 김용길 동문(법학 65졸)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달 27일 법과대학 학생실에서 열렸다. 김용길 동문은 지난해 장학금 500만원을 매년 기부하기로 약정한 이래 매학기 계산고시학사 학생 2명을 평가·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학업성적과 학습태도 등이다. 이번학기가 세 번째로 김용대(법학4), 이현용(법학4) 군이 각각 125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김용길 동문은 주식회사 동방스플라이의 대표이사도 있다.

제1441호 4월 2일자 2면에서 '당신의 지도교수님은 누구입니까?' 기사 중 '책문(전기공학) 교수'를 '책문규(기계공학) 교수'로 수정합니다.

**본사사령**

◇ 입수습기자

- ▲ 정종훈 (사과대1)
- ▲ 윤혜경 (공과대 기계공1)
- ▲ 김현정 (영상미디어학부 게임멀티미디어공1)

- 이상 5월 7일자

## 정각원 5월 행사(법회) 안내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는 불기 2551년(200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법회를 병행할 예정이오니, 모든 동국인과 일반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1. '부처님 오신날' 전 동국인 한 등 당일 안내**  
본교 정각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동국의 도약을 지원하는 "정진의 등" 이웃을 사람으로 밝혀주는 자비의 등" 나라가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통일의 등" 세계의 안정을 기원하는 "평화의 등" 모두가 성불하는 "지혜의 등"달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국가족께서는 이 행사가 적극 동참하시어 무량한 선근공덕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일자: 4월 23일(월) ~ 5월 24일(목)  
나. 접수장소: 정각원 사무실 (☎ 2260-3016 ~ 7 FAX: 2260-3744) (계좌번호: 우체국 012328-01-009426 예금주: 정각원)  
(우)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정각원 (http://jeonggak.dongguk.edu)  
\* 연등보시금은 연일경상시 소속공제에 포함되어 세제 혜택과 함께 자부심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2. 일만삼천 동악인을 위한 대중법회**  
가. 일 시: 5월 10일(목) 오후 4시  
나. 연 사: 오영교 총장  
다. 주 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 만들기  
라. 장 소: 중앙강당  
마. 주 관: 정각원, 총학생회
- 3. 수계 대법회**  
가. 전 계 사: 정법 콘서트(월정사 주최)  
나. 일 시: 5월 14일(월) 오후 5시
- 4. 연등 점등식**  
가. 일 시: 5월 14일(월) 오후 6시 30분  
나. 장 소: 불상 앞  
다. 참석대상: 누구나 가능
- 5. CBM 페스티벌 (Contemporary Buddhist Music)**  
가. 일 시: 5월 14일(월) 오후 7시 30분  
나. 초청가수: MC스노이퍼, 배지기 외  
다. 장 소: 만해광장
- 6. 5월 정기법회**  
가. 일 시: 5월 16일(수) 오후 4시  
나. 연 사: 박배훈(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다. 주 제: 불교와 행복함 삶  
라. 장 소: 정각원 법당
- 7. 연등축제(계등행렬)**  
가. 일 시: 5월 20일(일) 7시(식전행사 4시)  
나. 장 소: 동대문 운동장 ~ 조계사  
다. 참석대상: 모든 동국인  
\* 동대문 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제등행렬을 하며 행렬시 연등은 정각원에서 제공
- 8.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범오식**  
가. 일 시: 5월 24일(목) 오전 8시 30분  
나. 장 소: 정각원 법당

## 성공 취업을 위한 2007년 2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금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1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니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1. 목 적**
  - 유형별, 단계별 면접훈련을 통해 다양한 면접과정의 이해
  - 면접 시뮬레이션과 Role Play 통해 면접스킬 강화와 자신감 획득
  - 유형별 면접실습을 통한 본인의 능력과와 효과적인 면접 전략 수립
- 2. 교육내용**
  - 가. 교육형태: 1일(9시간) 면접스킬 집중교육
  -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구 분	차 수	일 시	인 원	비 고
2007-1학기	2 차	2007. 5. 26(토) 09:00 - 19:00	50명	

  - 다. 교육장소: 본교 다학관세미나실
  - 라. 프로그램 및 강사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진행 및 강사
08:40~09:00	등록	출석체크 및 교재 배부	취업지원센터
09:00~10:00	면접 특강	면접의 이해 및 면접대비 인터뷰스킬	
10:00~12:00	유형별 면접실습 I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 + 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전문강사
12:00~13:00	점 심	삼육급 식당	
13:00~15:00	유형별 면접실습 II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 + 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15:00~19:00	실전 모의면접	- 실전면접 + 피드백 - 집단, 토론, 영어, 프리젠테이션 면접	상정직인사담당 한솔그룹 인사담당
19:00~19:20	실문조사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	취업지원센터
- 3. 모집대상 및 모집기간**
  - 가. 모집대상: 4학년 및 가졸업자
  - 나. 모집기간: 2007. 5.11(금)~5.16(수) ※ 선착순(50명)의 2배수(100명)까지 선착순 접수
- 4. 신청장소:**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 5.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첨 소정양식) ※ 신청(접수)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6. 선발방법:** 접수순서로 선발예정
- 7. 선발자 명단 공고:** 2007. 5. 21(월)이전에 홈페이지 게재
- 8. 기타사항:** 교육비 전액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 2260-3055,3056)로 문의바랍니다.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주관 제45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작품모집

동국대학교에서는 민해와 미담에서 황석영·조정래·정화봉으로 이어지는 동국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국 고교 문예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제 45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이 본교에 입학할 경우에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국내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행위에 많은 문예인들이 참가하길 바랍니다.

- 1. 응모부문 및 제출편수**
  - 시 · 시조: 2편 이상
  - 수 설: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 수 필: 1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2. 응모 및 심사:** 주제에 상관없이 본인의 순수 창작 작품을 우편으로 응모하면 예비 심사를 거쳐 본선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여 학교로 통보합니다. 본선 참가자는 **6월 9일(토) 10시** 본교에서 열리는 백일장에서 제시된 시제에 맞춰 중국의 고교 문사들과 문학적 역량을 겨루게 됩니다.
- 3. 시상:** 각 부문별로 장원 1명, 차상 1명, 차하 2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하며, 본선 참가자 전원에겐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 4. 장학금 지급**
  - ▶ 장원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2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 차상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1년간 등록금의 30% 면제
  - ▶ 본교 재학 중 본선에 응모한 자에게는 졸업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 5. 작품제출기간: 2007년 5월 7일(월) ~ 5월 23일(수)까지** (당일 도착분에 한함, 직접접수 가능)
- 6. 작품제출처:**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 7. 주의사항:** 동국대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응모작품(원고지 A4용지만 허용)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mail과 Fax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공식홈페이지(http://munchang.dongguk.edu/)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Tel. 문예창작학과 (02) 2260-8773



# 파워엘리트 장학

## 앞으로의 방향은?

### 적극적인 홍보와 장학생에 대한 관리 이뤄져야

우리학교 건학 100주년을 맞아 신설된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은 우수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돕고자 시작된 장학 사업이다.

이 장학프로그램은 미국의 분야별 대학원 상위 5위 이내의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의 입학허가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10년간 매해 10명씩 선발하여 3년 동안 매년 최대 5만 달러를 지원해 주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가 파워엘리트 장학의 시행한 첫 해로 장학생이 총 2명 선발됐다. 박정동(전자공 98졸, U.C. Berkely 전자공학 전공 입학예정) 동문과 최호정(선학 04졸, Columbia University 동양미술사 전공 입학예정) 동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10명이 지원해 서류전형은 거쳐 6명이 면접평가에 응시했고 지난 1월에 예비합격자로 3명을 뽑았다. 하지만 한 명의 학생이 지원한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지 못해 최종합격자는 2명으로 확정됐다.

#### 응시생 저조 ... 홍보 보완 필요

파워엘리트 장학은 하나의 거대한 인재양성 프로젝트이다. 지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음에도 지원자가 10명이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 장학프로그램이 홍보에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홍보는 학교 홈페이지와 동대신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파워엘리트 장학'과 관련한 내용을 학교홈페이지와 동대신문을 통해 알렸다. 장학생 선발 일정이 아직 멀었음에도 신설된 장학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장학생 선발이 본격적으로 다가온 10월부터는 지원 자격과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안을 홈페이지와 동대신문을 통해 공고했다. 학교 브로슈어에 파워엘리트 장학과 관련된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대부분의 홍보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위원회 위원장인 조훈영(물리학) 교수는 "10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학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의 재학생들이 미래에는 파워엘리트를 준비하는 학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은 학교 교수들에게 추천을 부탁하고 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책자인 '동국상상'에서도 이번 5월에 발간 될 '봄'호부터 파워엘리트 장학을 홍보하기로 결정했다.

#### 지원 가능대학 · 선발일정 문제

또한 지원 가능한 대학의 범위도 학생들의 참여에 걸림돌이 된다. 학점과 공인영어시험 성적의 기준이 없어졌지만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은 미국 내 상위 5위 안에 드는 학교로 정해져 있다. 파워엘리트 장학 관계자는 "미국 내 상위 5위권 대학이 세계 상위 5위권 대학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10위권 대학까지 늘릴 경우 다른 나라 대학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라마다 입학할 하는데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혼란을 줄 수가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아직은 지원 가능한 대학을 늘릴 예정은 없다고 한다.

몇 년 후에도 지원자 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파워엘리트 장학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의 수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워엘리트 장학 선발일정도 짊고 넘어가야 한다. 지난해에는 12월부터 시작해 1월에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입학허가가 나온 올해 3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예비 합격자 중에서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면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미국 대학원의 합격자 발표가 오는 3, 4월 이후에 파워엘리트 장학생을 선발한다면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파워엘리트 장학 관계자는 "장학에 선발됐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해당대학에서는 이미 한 번 검증된 학생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선발일정을 바꿀 예정은 없다고 했다.

#### 지원자격은 확대돼

반면에 파워엘리트 지원 자격 중 졸업년도제한은 변경한다.

지난해 파워엘리트 장학 지원 자격이 졸업생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여서 올해 8월 졸업예정자들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9월에 학기가 시작됨에도 8월 졸업예정자 중에서 파워엘리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오늘(7일)부터 2007년 9월 입학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파워엘리트 장학생을 추가 모집해 문제가 됐던 점을 해결했고 앞으로도 장학생 선발에 해당되는 입학년도와 8월 졸업예정자까지 지원 가능하게 해 가능한 한 많은 지원자를 받는다고 한다.

파워엘리트 장학 사업은 다른 장학사업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단순히 장학금을 수여하고 끝나는 일반 장학금과 달리 끊임없이 학교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파워엘리트 장학 담당자도 "파워엘리트 장학생들과 자주 연락을 취해 유학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학교에서 크게 준비한 만큼 이 장학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훌륭한 인재 100명이 배출되길 기대한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 파워엘리트 장학생 인터뷰

##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중요”

면접을 보고 최종면접은 진학 후 계획, 어학 관련 면접을 본다.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 파워엘리트 장학을 준비하는데 어려웠던 점은.  
=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학업과 직장업무를 병행해야 했던 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특수한 여건이 오히려 자신을 잘 관리하는 데 체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파워엘리트 장학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 파워엘리트 장학프로그램이 이번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이라서 특별히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다. 다만, 이러한 장학 사업이 학교 밖으로 널리 홍보가 되어서 향후 유학을 준비하는 우리학교 후배들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앞둔 예비 동국인들까지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덧붙여서 파워엘리트 장학생이 입학하게 되는 학교의 재정지원(RA, TA, fellow ship 등)에 따른 파워엘리트 장학금의 수혜 범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현재 가장 권위 있는 삼성이건희 장학 재단, 한국고등교육재단(KFAS), 판정이중환 교육재단 등에서 지난 수년간 운영하고 있는 국외 유학 장학프로그램의 재정지원자에 대한 장학재단의 수혜규정을 참고하여 이를 수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많이 해소가 될 것 이다.

- 파워엘리트 장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참고해야 할 점은.

= 해외대학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상당한 기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철저한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대학원의 경우 TOEFL, GRE 성적이 필요하고 학교 및 전공에 따라 GRE subject 성적도 필요하다. 또한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인 이상의 추천서, Statement of Purpose(연구계획서), 이력서(연구경력기재),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이 요구된다. 본인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도 첨부하면 된다.

- 앞으로의 각오.

= 모교의 따뜻한 지원으로 새로운 도전에 임하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내 인생의 '동안겨(冬安居)'라고 생각한다.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용맹정진하여 모교를 빛내는 동국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 동국 100주년 Power Elite 장학 신청 안내

- 장학내용**
  - 장학금 및 체재비: \$50,000/년 이내 지급(최대 3년간)
  - 지원대상 학교
    - ▶ 미국의 분야별 대학원 평가 순위(전공학과 순위) 상위 5위 이내의 대학 (석)박사 과정
  - 선발인원: 0명
- 지원 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본교 학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07. 8월에 한함)
    - ▶ 컴퓨터영어 포함
    - ▶ 지원 대상학교의 2007년 9월 입학 예정자
- 전형 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공 구술시험 포함)
- 전형 일정**
  - 접수일자: 07년 5월 7일(월) ~ 5월 11일(금)
  - 1차 합격자 발표: 2007. 5. 18(금)
  - 면접일자: 07. 5. 22(화)
  - 최종 선정자 발표: 07. 5. 30(수)
- 선발기준:** 성적 + 면접
- 제출 서류**
  - 동국 100주년 Power Elite 장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지원 대상학교의 입학허가서 1부
  - 본교(학부)성적증명서 1부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 CBT(Computer Based TOEFL), GRE 성적표 각 1부
  - 자기소개서, 학업이수계획서(소정양식),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2인 이상 추천서 (소정양식)
- 제한사항**
  - 박사학위 취득 후 본교 교원 채용시 유예함
  - 매년 학기별 학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양식 및 제출서류는 추후 공지)
  - 총 유학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박사학위 미 취득시 중도 포기자로 간주하여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함
  - 석사 진학 예정자는 박사학위를 취득함을 단례로 지원함
  - 유학 중 학교변경 및 유학관련 기타사항은 사전으로 위원회의 승가를 받아야 함
  - 선발이 확정된 자는 반드시 당해연도 입학시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함
- 제출 및 문의처**
  -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본관 2층) (2280-3053, job@dongguk.edu)
  - 기타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바람.

### 학생경력개발원

## 2007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안내

여름학기 수강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해당 기간내에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 수업 일정**

가. 일반강좌: 2007. 6. 22(금)~7. 18(수) / 주 4일 수업(월,화,목,금). 15일간  
1) 2007. 7. 17(화) 수업은 7월 18일(수)에 수업(월, 수 수업)  
나. 계절학기강좌  
(1) 수형: 2007. 6. 25(월)~7. 6(금), 월~금 16:00~18:00(10일간)  
충무아트홀  
(2) 골프: 2007. 6. 25(월)~7. 6(금), 월~금 10:00~12:00(10일간)  
본교골프장  
(3) 산사의 생활: 2박3일(일정추후공지)  
※ 일반강좌 수업일정과 중복될 수 있으나 이점 유의바랍니다.
- 일반강좌 개설 대상 교과목 및 시간**

가. 개설예정 교과목  
- 2007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교과목 중 계절학기 개설 기준인원을 충족한 교과목  
- 단, 사이버강좌 및 학과에서 개설을 원하지 않는 전공·실험실습과목은 제외  
나. 개설 기준 인원: 강좌별 10명 이상(수강신청 및 등록)  
다. 개설 시간

이수구분	오전 시간	오전 시간	이강강좌
교양 및 교직	학수번호 끝자리 홀수강좌	학수번호 끝자리 홀수강좌	이강강좌
전공	1학기 개설과목	1학기 개설과목	개설과목

※ 개설시간의 학과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수업시간

이수구분	오 전	오 후	이 강
1시간수형	09:30~10:30(1.5~2교시)	16:00~17:00(8~8.5교시)	18:45~19:30(11~11.5교시)
2시간수형	10:30~12:30(2.5~4교시)	14:00~16:00(6~7.5교시)	18:00~19:30(10~11.5교시)
3시간수형	09:30~12:30(3.5~4.5교시)	13:00~16:00(6~7.5교시)	18:45~21:05(12~13.5교시)
4시간수형	09:30~13:30(4.5~5.5교시)	13:30~17:30(5.5~9교시)	
5시간수형	09:30~14:30(5.5~6.5교시)	13:30~18:00(5~9.5교시)	
- 수강신청학점:** 재학생 6학점 이내/휴학생 3학점 이내 신청가능(타대학 계절학기 교류학점 포함)
- 수강신청:**

가. 기간: 2007. 5. 9(수) ~ 5. 10(목)  
나. 장소: 교내컴퓨터 실습실(09:00~21:00), 개인PC(09:00~24:00)  
※ 중앙도서관, 민혜관은 일반 컴퓨터실습실 개방시간과 다르므로 착오없이 바랍니다.(09:00~21:00)  
다. 수강신청 방법  
- 정규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홈페이지/다문로센터/수강신청프로그램 다운로드/수강신청 프로그램으로 해당기간내에 교내 실습실 또는 개인 PC 수강신청  
- 9학기이상 재학생: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서만 수강신청 가능

다. 유의사항: 유학 중인 학생이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복합 후 등록하여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니 유의바랍니다.
- 수강신청 일정**

가. 정정 기간: 2007. 5. 15(화) ~ 5. 16(수) 2일간  
나. 개설 예정 교과목 안내: 2007. 5. 14(월) 예정  
다. 유의 사항  
- 최초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개설예정 교과목"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하오니 수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바람.
- 수강과목 취소**

가. 취소 기간: 2007. 6. 22(금), 6. 25(월) 2일간  
나. 취소 방법: 서울캠퍼스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계절학기 → 수강취소  
다. 유의 사항  
- 수강인원이 미달(10명미만)하면 폐강될 수 있으므로 수강취소로 10명이 만 될 경우 수강취소를 할 수 없음  
- 수강취소는 해당기간내에 가능함  
- 수강취소한 과목의 수강료는 수강료수 과목의 수강료 5/6를 환불함  
- 수강취소 기간이후에는 수강료는 불가하나,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환불할 수 있음(증명서류 첨부)
- 개설 교과목 수업시간 확정 발표:** 2007. 6. 7(목) 예정  
※ 서울캠퍼스 홈페이지/학사생활/학사생활/시간및강의계획서 참조
- 수강료**

가. 이론과목: 1학점 당(자아외명상 등 P/F 과목은 시간당) ₩80,000  
나. 실험실습과목: 1학점 당 ₩95,000 (일반물리학 및 실험, 일반생물학 및 실험, 자아와 명상, English Conversation, English Reading 등)  
다. 수형: ₩171,000(₩95,000+₩76,000)  
라. 골프: ₩135,000(₩95,000+₩40,000)  
마. 산사의 생활: 1학점 ₩95,000원(부대비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수강료 납부**

가. 기간: 2007. 5. 21(월) 09:30 ~ 5. 23(수) 16:30, 3일간  
나. 방법  
- 고지서 출력: "본교 홈페이지 my page로그인 → 계절학기 → 고지서 출력"에서 선택하여 인쇄  
- 수납은행 납부: 신한은행, 제일은행 전국지점  
다. 유의사항  
-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수업료 미납으로 수강인원이 미달(10명미만)하면 폐강될 수 있으므로 "교과목 확정 공고"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폐강된 경우 교무팀(2260-3037)으로 문의 바람
- 성적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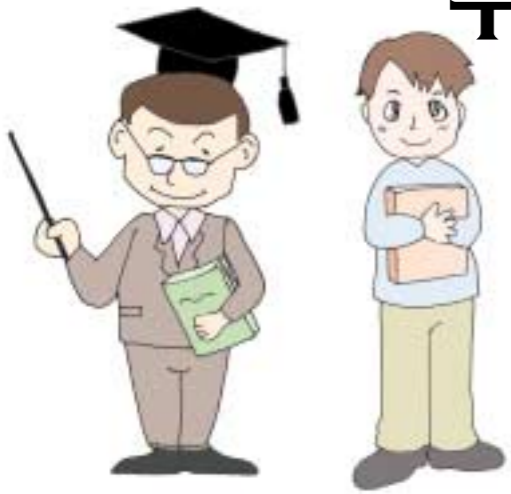
가. 계절학기 취득 성적은 졸업학점만 인정하며, 장학금 선발 및 학사징계 등 정규학기 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음  
나.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다. 재수강: 교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한 학생은 자동으로 재수강 처리됨. 단, 2007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의 경우 성적처리 미완료로 계절학기 재수강이 불가능하며, C'이하던 경우만 재수강 가능함
- 경주캠퍼스, 교무대학 계절학기**(건축대, 경희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외국어대)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학사지원본부

학과교육 + 취업지도

# 학과경쟁력 · 취업성공

##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전적으로 학교 측의 지원과 노력만을 바랄 수는 없다. 학과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취업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 교육과 강의환경, 학과 특성에 맞는 세미나, 체계적인 상담제도를 실천하기 위해 학과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입사 후 빠른 업무파악과 적응을 위해서는 사전 경험에 대비하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실전에 대비해 실무자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체계적인 강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예로 정보통신공학과를 들 수 있다. 정보통신공학과는 대학 IT전공 역량 강화 사업(NEXT, Nurturing Excellent engineers in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임베디드SW분야 1위를 차지해 지난해부터 4년간 매년 3억원의 국고금을 지원받고 있다. NEXT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IT분야에 대해 국내 대학의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교육품질 개선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현장 적응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IT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받은 국고금은 학습실 환경 개선, 프로젝트 멘토, 세미나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보통신공학과는 학과 자체적으로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학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실무자를 초빙해 2-3명의 학생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며 학생들은 그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를 익히며 이론과 실무를 상호보완적으로 교육받는다. 지난해에는 멘토프로그램을 통해 16개의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정원희(정보통신 07졸) 동문은 "방학동안 집중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이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멘토의 도움을 받으며 경력과 기술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입사 후 업무 파악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정보통신공학과만의 양식을 따로 만들어 '강의계획서'와 '지속적 강좌 품질 개선서'를 교수들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2-3장의 강의계획서와는 달리 공학인증기준 12가지를

각 과목마다 적용시켜 해당 과목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배울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지속적 강좌 품질 개선서는 전 학기 대비 이번 학기에 강좌 개선사항을 공학인증기준 12가지 항목에 비추어 학습 성과를 비교하고 강의내용, 강의방법, 선수과목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수는 강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평가를 하고 학생들은 질적으로 풍부한 수업을 제공받는다.

학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교수와 학생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는 이강우(정보통신공학) 교수는 "학과만 1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실력도 1등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니며 잔기술을 익히기보다는 교수와 공학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영학과는 학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람을 접하고, 열린 사고로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세미나를 통해 취업에 대비하고, 사전경험을 들으며 시각을 넓혀가고 있다.

TODAY & TOMORROW'S CEO특강은 경영학과를 졸업한 선배 중 대기업 CEO를 초빙해 '기업은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1년에 2-3차례 열리는 데 매년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석한다. TODAY & TOMORROW'S CEO특강에 참석한 이민지(경영3) 양은 "CEO 자리에 있는 선배의 모습을 보며 취업준비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취업을 위해 어떤 부분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 배우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Brown Bag Lunch Seminar는 갈색 종이봉투에 든 샌드위치 등 가벼운 점심을 함께 먹으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다. 졸업한 선배 중 과

장급의 중견 간부 2-3명을 초청해 재학생 20명과 함께 햄버거를 함께 먹으며 세미나를 가진다. 소수의 인원으로 선배들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질문이 오고간다. 세미나 후 매번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다.

The Global-Perspective Seminar는 경영학과 학생들의 국제경쟁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자리에는 외국인 교수·학생·CEO 등을 초대해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는 한국인의 모습'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된다. 학생들은 The Global-Perspective Seminar를 통해 고정관념을 깨고, 열린 사고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또 외국인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영어면접의 기본을 미리 맞출 수 있다.

박찬규(경영학) 교수는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기업 실무자에게 실무 감각을 배우고, 세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며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들은 '상담제도'가 정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수와 학생 모두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취업과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 중 산립자원학과는 '담임교수제'를 시행해 한 교수가 한 학년을 4년동안 관리하고 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취업 문제에 있어서도 학생의 작은 특성까지도 잘 알고 있어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

경쟁력 있는 학과가 되기 위해 교수와 학생 각자의 노력과 함께 충분한 의사소통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dongguk.edu



정보통신공학과는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한 '영상처리 기반의 핸드미우스 인터페이스'를 2006 한이음 EXPO&JOB FAIR에 출품해 학과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 학내 '취업프로그램' 을 아시나요?

## 상시진로지도시스템 · 취업캠프 등 각종 특강 진행중



상시진로지도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과 경험으로 실전에 대비해 보자.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지난해 처음 시행된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 특강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참가하는 학생이 늘어 매년 150명 정도의 학생이 참가신청을 한다. 또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접수한다. 취업지원센터 변민우 과장은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아져 취업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진로에 대한 고민 1학년부터 시작

이변하기부터 3·4학년 위주의 취업프로그램에 치우쳤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 진로지도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인재개발원에서 만든 콘텐츠를 1주일에 한 번씩 학년별, 주별 주제에 따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우편을 통해 전체 홍보는 했지만 상시 진로지도시스템에 대해 아직 많은 학생들이 알지 못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다. 단순히 보내주는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는 취업준비와 진로설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제에 따라 적극적인 사고활동이 동반되고, 상담을 통한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인원으로는 상담을 통해 일일이 피드백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이다. 비교적 상시 진로지도시스템을 꾸준히 이용하는 학생들은 "자료를 접하면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오프라인 상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취업지원센터 채희원 직원은 "현재는 텍스트로 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오프라인 상담과 연계해 질적 수준을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 나도 미래의 커리어우먼

당당한 커리어우먼을 꿈꾸는 여학생이라면 '커리어우먼 아카데미'를 활용할 수 있다. 커리어우먼 아카데미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여성 셀프리더십 △면접 이미지 메이킹 △모의 면접 시뮬레이션 △선배와의 대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말 시간을 이용해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신청을 하고도 불참하거나 아카데미 기간 중 중도탈락

으로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다.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8기 수료생인 정혜경(정보관리4) 양은 "최근 입사에 성공한 선배들과의 대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며 "다른 취업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이미지메이킹과 같은 프로그램은 과감히 빼고 건축업 분야 등 비교적 남학생을 선호하는 분야의 여성 전문가 강의를 보완하면 좋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일반적인 취업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커리어우먼 아카데미'의 특성을 더욱 살릴 수 있는 교육내용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교육모습

### 취업캠프로 실력다지기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시험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꼭 채우고 싶은 학생이라면 취업캠프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는 점차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내용은 △성공적인 자기경영, 커뮤니케이션 기법 △셀프 리더십, 팀 리더십 △면접 Role Play △기업 인사담당자 실전 모의면접 등이다. 이번 여름방학에 진행되는 6·7기 캠프는 리더십 교육을 더욱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겨울방학 취업캠프에 참여했던 육경수(경제4) 군은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뿐만 아니라 각 학년별로 다양한 취업캠프가 마련되어 단계적인 실력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고 나서야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홍보와 함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뿐만 아니라 전체학생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취업프로그램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을 비롯한 학교 측의 지원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취업프로그램의 더욱 높아진 실효성을 기대해 본다.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 형성교육

최미혜 기자  
lmisonaral@dongguk.edu

# 바늘구멍 취업문 ... 학교에서 뚫는다

## 취업지원센터 '취업 스터디 그룹' 체계적인 방향 설정에 큰 도움

우리학교 취업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돕기 위해 취업 스터디그룹을 지원하고 있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몇몇 대학에 비해 발 빠르게 사업을 시작했고,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인 편이다. 타 대학은 단순히 지원금만을 지급받거나 공모전을 치른 뒤 단기간 내에 그룹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우리학교는 매월 보고서를 받고 스터디그룹에서 개설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꾀한다. 또한 해가 지나서 그룹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후배를 뽑거나 추가모집을 이용해 인원을 충원한다. 지난해부터는 노동부 취업스터디 그룹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서 사업확대에 도움을 받고 있다.

### 저학년때부터 취업에 관심을

현재는 4학년 1학기까지의 휴학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초에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 중이다. 모집업종은 △금융업 △유통업 △건축/건설업 △IT/정보통신업 △제조업 △매스미디어 △그림사 △공기업 △기타 업종/직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총 21개 그룹에서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활동프로그램으로는 △직업심리검사 △입사서류작성 클리닉 △모의면접 △시사스터디 △업종별 취업 간담회 △업종별 동문 멘토링 △업종동향 조사 △자유주제스터디 등이 있다. 6명 이상이 한 그룹을 이루게 되는데 학습의 효율성과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약 등을 감안했을 때 그룹 당 적정 인원은 8명에서 10명 정도이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소수로만 운영하는 그룹이 있고 때로는 비슷한 성격의 두 그룹을 합치거나 분리하기도 한다. 매월 말 제출하는 활동보고서의 평가점수와 그룹 인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지원된다.

4학년의 참여가 가장 많은데 가능한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학년에 초점을 맞춰 일찍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학년 2학기 학생의 경우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하기 쉽고 참여율이 떨어지므로 모집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취업지원센터 장지훈 상담원은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데 늦어도 3학년 1학기 정도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그룹장 모임이 열리며 오는 9월 그룹장 모임을 앞두고 있다. 이 자리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서로 인연을 익혀 인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시로 그룹

이나 개인별로 상담원과 의 면담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기도 한다.

### 단과대·학과차원 분산 지원해야

취업은 기본적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각 그룹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전체적인 지도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 각 스터디그룹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는 딱히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구성된 메뉴로 운영된다. 홈페이지는 그룹원들의 의사소통 공간이자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격려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스터디그룹을 상담원 1명이 담당하고 있고, 다른 업무들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중앙에서 전직으로 취업 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단과대나 학과 차원의 취업 기능을 강화시키고 취업지원센터측과 방향 제시와 협조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졸업생이 늘면서 많이 나아진 편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멘토 확보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멘토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기도 하지만 주로 소속 스터디그룹의 졸업생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터디 그룹에서 멘토를 필요로 하거나 요청을 하면 이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분간은 그룹의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올해는 최대 30여개 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대된 뒤에는 질적인 부분 향상에 더욱 애를 예정이다. 그룹 수가 충분하면 인프라 형성이 가능해지고, 업종이 어느 정도 유지됨으로써 자료를 보존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기존부터 있던 그룹들은 이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선배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 실질적 취업을 향상에 큰 도움

학생들은 취업 지원을 통해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힘든 부분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취업스터디 그룹에 속해 있던 4학년 학생들의 정규직 취업률은 50.7%인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특히 스터디그룹 dgu(IT)의 경우 지난해 4학년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했고 이 중 90% 이상은 삼성에 취직을 했다. F1(금융)의 김민철(경제4) 팀장은 "취업 준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고방식이 다른 다양한 스터디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어 좋다"고 밝혔다.

막연히 취업에 대한 불안감만을 가지고 정작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면 취업스터디그룹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취업스터디그룹이 취업준비에 대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학생들이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해 본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 대학생 건강 ④ 식생활

### 대학가에도 붙어온 웰빙바람 능동적으로 과하지 않은 식생활 해야



대학교 신문사에서 대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이란 주제로 에세이를 부탁받고 어떤 글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이 됐다. 물론 내가 아주 높은 세대도 아니고 아주 젊은 세대도 아닌 끼어있는 세대인데, 과연 내가 대학생활을 할 때와 식생활 면에서 어떻게 변했을까? 대학가는 싸지만 나름대로 푸짐한 음식을 대접 받을 수 있는 곳이었었는데 말이다.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은 대학가와 떨어진 주택가에 있어 요즘 대학가가 어떤지 궁금한데 가끔 학교를 들릴 일이 있으면 예전에 보던 분식집, 자장면 집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이다. 그래도 안을 들여다보면 '웰빙'이 붙어있는 메뉴를 심심찮게 발견하니 예전과 많이 바뀐 것 같다. 또한 대학교 근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음식업체인 즉 전문점이라든지 생과일 주스점들도 이전 볼 수 없다. 대학가 안에서도 김밥보다는 양배추 말이 밥이 인기가 좋다고 하니 칼로리, 지방에 신경을 많이 쓰는 영리한 학생들이 많아진 것 같다.

필자의 전공이 당뇨병, 대사 증후군 등 현대병을 전공으로 하는 내분비내과내과인지라 진료실에서 접하는 환자들을 보다보면 대개 정상보다 약간 빛나기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뭇가 정상인지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다.

건강한 식생활이란 과하지 않은 식생활이 아닐까 한다. 자기 표준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식생활 말이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이를 위해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단순한 생활 규칙만 정해놓아도 될 듯하다.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일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서 적당량을 식사하기, 이는 대학생이 아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소리 같지만 꼭꼭 지키지 않는 지름길이다.

사람의 신체는 시계같이 정확해서 들 어간 만큼 나오게 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장기관인데 먹는 만큼 소변으로 나온다. 필요한 에너지보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으면 잉여분이 축적돼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게 된다. 동물실험에서도 소식을 하는 그룹이 오래 산다는 것이 증명돼 있으므로 영리한 요즘의 대학생들은 각자가 필요한 칼로리를 알고 그에 맞게 식생활을 유지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는 본인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는 문화가 상당히 있다. 내가 이대로 하고 싶은데 남들이 권하는 술에 할 수 없이 먹어야 하는 현실이다. 내게 취향이 맞지 않으면 정중히 거절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미국 대학식당에 가면 버러는 것이 채식 주의자를 배려한 코너가 따로 있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반대로 특히 여학생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과체중이라고 착각해서 '살아, 살아, 내 살아' 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는 사실이다. 건강해 보이는데 비만이라고 불만이다. 의사 입장에서서는 저체중도 비만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에 무조건적인 다이어트는 경고를 하게 된다.

대학 생활이 시험, 봉사, 학문 연구로 바쁘겠지만 몸장 신드롬처럼 몸에 신경 쓰는 학생이 많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웰빙 붐으로 대학생이 능동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었을 하는 바람이다.



김경아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 우리학교 논술 길라잡이 4. 나는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했다(인문계 신입생)

- 글 쓰는 순서
1. 동국대 통합논술, 이렇게 출제하고 평가한다(윤재웅 교수)
  2. 인문계 모의 논술고사 해설 및 답안 분석(윤재웅 교수)
  3. 자연계 모의 논술고사 해설 및 답안 분석(성정석 교수)
  4. 나는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했다(인문계 신입생)
  5. 나는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했다(자연계 신입생)
  6.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하세요(인천대건고 논리학 교사 주영기)

대학 입시에서 갈수록 논술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수능과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각 대학에서 좀 더 구체적인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하기 시작한 논술고사. 우리



학교 역시 학생들의 능력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 다양한 입시 전형들을 마련하였다. 그 전형들 가운데 논술 시험을 봐야하는 정시 나군 전형을 선택한 나는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야 했다. 수능 점수도 그리 높지 못하고, 내신도 썩 좋지 못했던 나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준 논술, 그 학습 과정을 이야기 해 보고 싶다.

내가 논술 학습을 시작한 것은 고2 때였다. 학교에서 자원자를 받아 유명한 강사들의 수업을 2주에 한 번씩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당시 논술 학원들이 홍보를 위해 보낸 인기 강사들의 달변에 나와 내 친구들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강사

까지 오니 일석이조라며 논술 학습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작 수업은 인기 강사가 아닌, 토요일 오후의 수업마다 우리를 잠으로 인도하는 강사분이 지도하는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다. 수업 내용이 '정보화 사회의 폐해', '개발론과 환경보전론'과 같은 유형의 주제들뿐이었다. 물론 이런 보편적인 주제들이 항상 출제가능성이 높은 것이어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고,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이 주제들에 대해 실력을 쌓을 수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좀 더 다양한 주제와 시사 문제를 경험하고 싶었던 전 무척 아쉬웠다. 면접 연습도 단 1번 뿐이어서 실전 감각을 제대로 익히기 힘들었고, 논술 양식도 1가지로 거의 고정되어 있었다. 약 1,800자 정도의 긴 분량에 문제를 2~3개 주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는 양식에서만 연습했다. 서론은 고사 성이나 예시를 들고, 본론은 현재 상황의 서술과 대안 제시, 결론은 의미 부여나 미래 상황 예측으로 마무리를 짓는 연습을 주로 했다. 이 연습을 통해 기본기를 충실히 연마할 수 있었지만, 내가 수시나 정시를 지원했던 대학은 400자 이내, 길면 600~700자 이내 분량의 문제를 여러 개 내는 형식이어

서 실제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쓸 기회는 극히 드물었다.

이렇게 무언가 아쉬운 점을 남기고 고3이 되었다. 3학년이 되어 잠시 논술은 잊고 한창 수능 공부에 매달리고 있었다. 때는 3월, 각 대학의 입학처 관계자 분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입시 설명회를 열곤 하였다. 이 때, 한 입시 설명회에서 모 대학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논술 학습 방법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 방법을 참고하여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합하여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고안해내었다.

우선 친구들을 모아 4명의 소그룹을 만들었다. 혼자서 공부한다면 자신의 단점을 알기 어렵고, 운라인으로 학원 등에 보내 침식을 받으려면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글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진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니 서로의 글에 곧바로 침식을 해주거나 단점을 지적하고, 서로 비판하여 활발히 토론까지 할 수 있어 재미도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학습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들을 듣고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 일석이조의 방법이라 할 수 있었다.

둘째,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시사 문제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였다. 요즘 대

학들은 이슈로 떠오르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물으려고 한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한 포털사이트의 '사실 대 사실'이라는 코너다. 이 코너는 최근 떠오르는 쟁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의 유명 신문 등의 사실 2개를 나란히 실어놓고 끝에 누리꾼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다. 친구들과 함께 사실 2개를 인쇄하여 제시문으로 삼았다.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서 글을 써서 상반된 관점도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았다. 논술에서 자신의 주장이 극단적이지 않고 다른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포용해야 하며, 글은 항상 보편성에 기초하여 독창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셋째, 약 400자 정도의 짧은 분량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친구들과 '사실 대 사실' 코너에서 따온 사실을 제시문 삼아 논술을 할 때, 400자 원고지를 구입하여 한 장에 5자 이상 모자라지 않게 채워 쓰는 연습을 했다. 이 연습의 장점은 3가지다. 하나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

는 짧은 내용안에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간단명료하게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글의 내실을 기할 수 있으며, 군더더기 없는 글을 쓰면서 초과를 막는 연습도 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짧은 분량의 문제를 여러 개 출제하는 추세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고안한 이 방법으로 고3 중반까지 공부하다가 수시기간이 다가오자 각 대학의 기출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며, 서로 역할을 맡아 면접 연습도 해보곤 하였다. 논술이 따로 시간을 내야하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공부하다가 잠시 쉬면서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쓰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야간자율 학습시간에 틀나는대로 자유롭게 하였다. 물론 이는 선생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실한 감독, 그리고 우리 학생들 스스로의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형식 갖추기에 중점을 두고 답안을 공식화 하는 것 같아 애석한 생각이 든다.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논술을 준비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김선배  
법과대 법1

2008학년도 대학 입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밀접한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통합고과정 논술'이라는 새로운 입시 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수능과 내신과 논술을 같이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입학처와 공동 기획으로 동국대학교 통합논술 준비와 관련한 기획물을 올 한 해 동안 연재한다.  
편집자

# 주어진 문제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 필요

전략기획본부장 인터뷰

“모두 공감할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



이형우(행정학) 본부장

- 오영교 총장 취임 이후 전략기획본부의 새로운 역할을 설명한다면.  
= 전략기획본부는 이전 기획처가 하던 일과 대부분 동일하다. 그러나 좀 더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주요한 업무를 위주로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좋을 듯 싶다. 크게 기획, 예산총정, 평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번 개편을 통해 감사라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됐다. 우리학교가 나아가 방향에 대해 구상하고 비전을 세우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동국대학교의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다.

-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 예산조정계획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보관리실과의 협력을 통해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예산결재 시스템을 포함해 전반적인 결

제 시스템의 통합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중앙집권화에서 분권화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힘이 들지만 직원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생을 고객으로 대한다는 모토 아래 그동안 해왔던 부서평가와 다른 방식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현재 새로운 경영평가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각종 제도와 지표들 개발 중에 있으며 타 대학이나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우리 학교에 접목 시킬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앞으로의 각오.  
= 각 학과, 부서등과 교직원들 평가한다는 부분에서 일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 모두 평가라는 것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평가방법에 관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에 비중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또한 우리학교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데 많은 힘을 쏟을 것이며, 우리학교 학생들을 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학사지원본부장 인터뷰

“급변하는 학생들 요구 맞춰 지원 확대할 것”



이상일(사회환경시스템공학) 본부장

- 직제개편이후, 업무처리방식의 변화가 있다면.  
= 학교 중앙에서 이뤄졌던 학사지원업무가 많은 부분 단과대학으로 이전되었다.

자율·책임경영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기존에 본부에서 최종 결정했던 사항을 현장에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되었다.

이로 인해 책임이 무거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의사 결정이 빨라져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예년 같으면 10개가 넘게 올라왔던 결재서류가 2, 3개 내외로 줄었다.

또한 그동안 분리되었던 대학원 행정이 대학과 통합되면서 대학원 경영이 함께 이뤄진다. 이외에는 예전에 교무처와 학생복지실의 업무가 내용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 현재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업은.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 우선 편제정비를 통해 학문구조 조정을 단행한다. 누적인 관행을 정리하고 학생과 사회의 수요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편제 시스템을 구성할 것이다. 이미 지난 달 학제개편에 대한 시행안이 나왔고 단과대 구성원과의 논의를 통해 이달에 확정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승진, 재임용, 연봉제를 통해 공정한 교원 평가를 주로 할 예정이다. 일괄적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과대 특성을 반영해 평가 기준도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 대학원 업무가 새로 추가되었는데,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 그동안 학부와 대학원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지원에 장애가 있었다. 대학원을 관리하는 각 단과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에 있어 우선순위를 높여준다.

외국이나 국내의 우수 대학원은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해 양적 질적 인프라 구축과 자본 확보를 하고 있다. 생명과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결다리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수익이 장기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장학금제도를 확충하고 실험공간이나 자체 등의 인프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 파동생명공학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학교 생명과학연구원(원장=박정국, 생명·화학공)과 주식회사 티에스코리아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해 3억원의 민간자본이 유치되었다. 체결식은 지난 3일 4시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상록원 구조개선 논란 끝 시행 결정

소위원회 구성해 방학중 공사 진행 ... 9월 3일 개강

상록원 식당 구조개선이 많은 논란 끝에 시행된다. 학부 학생, 대학원 학생, 교원, 직원 위원 각 1명과 학교 행정부서 중 캠퍼스기획단 직원 2명, 생협 직원 2명 등 학내 구성원 8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상록원 식당 구조개선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사 등 실무는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과 학교 측의 협력으로 진행한다.

생협은 1차 설계를 하고 지난달 12일 및 27일 구성원 대표들과 함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상록원 식당 구조개선을 기획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열린 생협 임시 이사회에서 상록원 식당 구조개선에 대한 안건이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됐고, 부결될 경우의 행보가 결정되지 않아 상록원 구조개선안은 당분간 표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구조개선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닌가”하는 학내의 우려를 사게 됐다.

이에 한 관계자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회들이 상록원 식당

의 구조개선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매장과 직영매장의 비율 등 그에 따르는 하위 사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문제는 학내에 크게 퍼졌다. 27일 열린 이사회 이후 총학생회가 생협을 통해 생협 감사주제인 정형주(통계4) 총학생회장장과 임태규(북한학 석사과정)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진행한 수시감사 결과 생협 이사장의 관공비 유용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관련 사안이 발의되며 학생대표들과 이사장 간의 의견대립이 더욱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지난 1일 이사회가 소집됐고 11명의 이사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된 안건이 상정되었다. “상록원 식당 구조개선은 시행하되, 운영방식 등 논란이 돼 오던 사안들은 소위원회

회를 오늘 오후 3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여러 타대학 학생식당을 벤치마킹해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록원 식당 구조개선의 주내용은 △내부 구조 리모델링 △유명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전문점 임대 운영 △3층 교직원 식당의 전문식당화이다. 또한 1층에는 종합 분식점, 2층은 떡볶이 매뉴 등 학생식당으로 운영되며 이 매장의 임대와 직영 여부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상록원 식당 옥상과 외부도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

상록원 식당 구조개선은 1학기 수업이 종강되는 6월 말 시공해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오는 9월 3일 개강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중에는 동국관 식당을 개방, 운영하고 원흥관 아리수 식당을 활성화해 구성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nitate@dongguk.edu

건학 101주년 기념식 오늘(7일) 열려

건학 101주년 기념식이 이사장 영배스님, 오영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늘 오후 5시 30분 상록원 3층에서 열린다.

내일(8일)은 건학 101주년 기념 총장배 체육대회가 열린다. 교직원과 동문이 참여해 골프, 볼링, 테니스 대회를 진행한다.

다음은 기념식에서 수여될 올해 장기근속상, 공로상, 학술대상 및 학술상,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의 수상자 명단이다.

▲장기근속 교원 표창대상자 △30년 근속=정기섭(행정학), 백수현(전기공학), 홍영식(컴퓨터공학) △20년 근속=최장술(선학), 손성(법학), 배형(경제학), 이영환(경제학), 김익기(사회학), 양영진(사회학), 한진수(회계학), 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 최순열(국어교육) △10년 근속=김상현(사학), 정병준(사학), 한용수(중어중문학), 이성량(경제학), 김무근(신분방송학), 정덕훈(경영정보학), 박재완(회계학), 송병호(기계공학), 김양우(정보통신공

학), 최병석(정보통신공학), 이용규(컴퓨터공학), 김대열(미술학) ▲장기근속 직원 표창대상자 △30년 근속=이윤운(퇴직), 손봉오(퇴직) △20년 근속=김윤길(교육방송국), 이국환(정보기획팀), 허부(총괄지원팀), 강은희(체육부), 권지연(총괄지원팀), 이동은(학술정보서비스팀), 김경희(입학관리팀), 임해순(혁신관리팀), 함영란(교양교육원 학사운영실), 정인만(총괄지원팀), 최경만(실용농장관리과), 박노경(전략예산팀) △10년 근속=김병중(경영평가팀), 김윤수(교무팀), 문상국(정보기획팀), 유광호(혁

신관리팀), 이광휘(학술정보서비스팀), 정병경(생명과학연구원), 조순식(공과대학 및 정보산업대학 학사운영실) ▲공로상 수상자=전병건(전략예산팀), 최문규(정보운영팀), 허부(법인사무처 총무부), 권지연(총괄지원팀), 최종우(총괄지원팀) ▲동국 학술대상 및 학술상 수상자 △동국학술대상=유병성(식품공학) △동국학술상=김덕영(반도체과), 김경재(경영정보학)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김상종(경영학), 신해철(학술정보서비스

**동약로에서**

### 귀머거리의 역사

이번 학과편제 및 정원조정 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독어독문학과와 북한학과와 폐과계획이다.  
학교 측은 “이번 조정안이 현재로서는 시안일 뿐이며, 앞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점점 수준에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정이 향후 몇 년간의 입학요강에 반영될 것을 고려할 때 ‘그냥 한번 해보자’는 식의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발은 처음부터 예상됐던 것이다.  
독문학과는 지난 25일부터 폐과반대 시위를 하고 있으며, 문과대 차원에서 폐과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학과는 경우 현재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조정안 확정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정범(독문4) 군은 “학제개편 확정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를 발표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처음부터 배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만약 이번 계획안이 확정·시행된다면 폐과대상 학과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학교 측은 “학과가 폐지되더라도 전과하지 않고 남아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전공을 이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을 개설할 것”이라고 했다.  
학내 곳곳에 붙여있는 폐과 반대 성명문과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학과편제 조정안을 바라보는 일반 학생들의 생각은 들로 나뉘고 있다.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진리의 전당인 대학에서만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자신이 품고 있는 학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심정을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는 공존된 모습이다.  
이번 일을 취재하는 도중 1995학년도 2학기 동대신문에 실린 학부제 도입 논란에 대한 기사를 우연히 읽게 되었다. 12년 전 당시에도 학내의 여론수렴과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부족이 문제되었다. 건학 101주년을 맞이하는 동약에서 여전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느낀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죽은 학문의 사회 ... 지난 2일 오후 2시 학과편제 및 정원조정안을 규탄하는 문과대 학생들의 항의 행동이 명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항의성명 발표와 함께 학생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학문의 다양성의 죽음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으며 학생회 차원의 총장 면담을 요구해 다음날 진행했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희전무대

슬픈 이름

○...저는 학림관 휴게실에 붙어 있는 ‘금연’ 표지판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정결하고 아늑한 휴식을 보

장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지요. 저는 이름값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제 이름의 뜻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모자라서 그런지 제 앞에서 담배연기를 내뿜어 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쯤 이름값을 하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저를 내쳐주세요. 너무 민망합니다.

불협화음

○...기자는 댄스 교양 수업이 이뤄지는 체육관 지하 무용실에서 제2의 음악소리가 난다는데.  
수업 교수=농구부 연습이 체육관에서 이뤄져 소리가 울리고 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몇 년간 수업해본 결과 절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교원보직·직원인사**  
지난달 1일자로 교원 보직인사가 다음과 같이 단행됐다.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이준서(경영학)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장=이광근(식품공학)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교육부장=김승호(국어교육) 다음은 직원인사 발령 명단이다. △캠퍼스기획단 시행관리팀장=박동수(캠퍼스기획팀 겸직) △장각

등록금 인상률 1.5% 조정

2007학년도 등록금 인상문제가 학교 측이 지난 달 총학생회(회장=정형주·통계4, 이하 총학)의 10개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며 마무리됐다.  
등록금 인상을 재학생 7.5%, 신입생 8.5% 중 1.5%가 조정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1.5% 가운데 0.5%는 2학기에 T-Money카드 기능과 기존의 학생증의 기능이 통합된 형태인 새로운 모델의 학생증을 발급하면서 그 학생증에 적입할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교내 생협매장과 T-Money가맹점에서 전자결

제를 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등록이후 휴학한 학생에 한해서만 동국가족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1%는 강좌별 수석장학 100% 인상, 장애인에 위한 장학 신설 등 총학이 제안하는 교육환경 및 학생복지 개선 사업비로 집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지역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한 사항은 수혜받는 범위가 적고 투자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학교 측에서 반대 함으로써 무산됐다.

학생=소음 때문에 교수님 설명이나 음악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수업진행도 힘들고 짜증이 나요. 기자=정말 열악한 환경이군요.  
**화들짝**  
○...어머나? 왜 이래?  
오늘의 소리는 컴퓨터실에서 모델 사이트 틀림에 조연이 울려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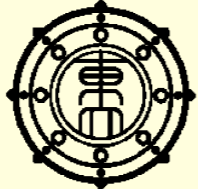
은 과제가 다운받아 지지 않고 오류 화면만 뜰 때 놀라는 학생의 소리입니다. 학교차원에서 해킹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 방화막이 있다는 것을 몰랐나 보군요. 누구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고 하소연 해봐도 이미 조별 과제는 망쳐버렸네요.  
이상 '소리를 찾아서' 결국 과제 망친 학생의 소리였습니다.

# 건학 101주년, 2007년 Dongguk Upgrade

## 학교 이미지 Upgrade



▲ 기존의 100주년 엠블럼



▲ 기존의 우리학교 로고

### 동국의 새 얼굴 - 엠블럼과 UI

지난해 처음 선보였던 우리학교 엠블럼이 건학 101주년을 맞아 새로운 엠블럼으로 재탄생된다. 기존의 건학 100주년 엠블럼을 소폭 수정해 새로운 100년을 도약하는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엠블럼으로 바뀐다. 엠블럼은 현재 논의를 통해 디자인 시안을 정한 상태이다. 최종결정을 통해 조만간 새로운 엠블럼이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UI를 개발해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학교도 전통적인 이미지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위해 UI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구성원들의 UI에 대한 인식과 변화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UI 개발을 결정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UI를 개발할 경우, 새로운 UI는 내년 개교기념일에 맞춰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구성원의 편의 upgrade

### - 무빙워크

캠퍼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후문으로부터 100m길이의 무빙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무빙워크 설치에 현재 후문근처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설계 후 3~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무빙워크가 설치된다.

### - 신공학관 · 기숙사 건립



▲ 기숙사 전경



▲ 남산에서 본 기숙사 전경

- 건축면적(연면적) : 1,318 평(15,340평), 주차장 : 2,310 평
- 건물규모 : 지하4층 지상7층(기숙사, 지하2층(주차장))
- 기숙사 실수 : 455실.(905인 수용)
- 주차장 : 261대 주차
- 건설기간 : 2007.08 ~ 2010.01 (예상공사기간)

현재 협상을 통해 동부건설로 최종적으로 건설업체를 선정했다. 현재 선정된 건설업체와 기숙사 공사 및 시설과 관련해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완공은 오는 2010년 1월 이뤄질 계획이고, 완공 후 2010년 신학기부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

## 캠퍼스 공간활용 Upgrade

### - 건물 증축

이번 한해 동안 원흥관과 학술문화관, 중앙도서관 증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흥관과 학술문화관 증축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중앙도서관은 설계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건물 증축을 통해 늘어난 공간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자료열람실로 활용된다.

또한 효율적인 공간확보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동국관과 해화관 사이 구간에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것도 5월중으로 설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우리학교 미래의 캠퍼스 모습



# 학내시설 개선 및 확보 통한 발전 토대 만들기

## 강의실 시설 등 학내 열악한 환경 지속적인 개선 필요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학교 발전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그동안 공간 부족 문제와 맞물려 공간이 특성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공간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연구, 강의 환경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한 공간문제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점차 해소될 것이다.

공간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현재의 공간과 시설이 어떠한 지에 대해 점검해봄으로써 학내 시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해 11월 '통계조사방법론 및 실습' 수업(강의=김선웅·통계학)의 일환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재학생 628명 대상) 중 우리학교 시설만족도와 관련된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학내 시설 중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 응답자 중 35.4%의 학생들이 강의실 시설에 대해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로 운동·휴게시설(22.8%), 컴퓨터실습실 시설(21.5%), 실험실 시설(11.6%)순이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학생과 교수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강의실 시설을 비롯해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을 나타낸다.

### ◎ 강의시설

강의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책걸상과 칠판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동국관과 학림관, 해화관 등 건물의 강의

실 책걸상을 교체하고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빈프로젝터를 설치해 일부 강의실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강의실 보수 공사를 통해 동국관, 명진관 등 각 건물에 첨단강의실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강의실 시설이 전반적으로 기존보다 개선됐다.



▲ 원흥관의 첨단강의실

하지만 여전히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률 협상 결과를 공지하면서 '올해 등록금 인상률 문제에 대한 협상결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교내 140여개의 모든 강의실과 110개의 실습실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진 않았지만, 강의실 시설의 현 상황을 파악해 개보수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수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 ◎ 실험실, 컴퓨터 실습실 시설

오래돼 쓰기 힘들거나 고장이 잦은 시설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실험실 시설·컴퓨터 실습실 시설 장비에 대한 점검과 개선 작업도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실험실을 이용하면서 실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인 '실험 기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실의 경우에도 일부 개선이 이뤄졌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컴퓨터 실습실의 컴퓨터 중 오래돼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 이용할 수 없는 컴퓨터가 많다.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과 함께 컴퓨터 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 ◎ 운동·휴게공간

현재 학내 구성원들이 휴게공간과 운동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해 9월 개선 공사를 통해 학림관 3, 4층 휴게공간을 확대하고 체육관에 샤워실, 체력단련실을 새로 만들었지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일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공간은 실외장소로 대운동장과 만해광장, 실내 체육관에 한정돼 있다. 실내 체육관의 경우 체육부 학생들이 훈련을 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체육부 학생들의 훈련시간 외에만 일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어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현재 공간 활용에 대해 조사해 본 후 연구, 강의, 휴게 공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간 확보와 증축 뿐만 아니라 내부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도 우리학교의 앞으로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시설을 이



▲ 기존의 컴퓨터와 교체된 최신형 컴퓨터

용하고 있는 학내 구성원들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는 동시에 이와 함께 개선 및 확보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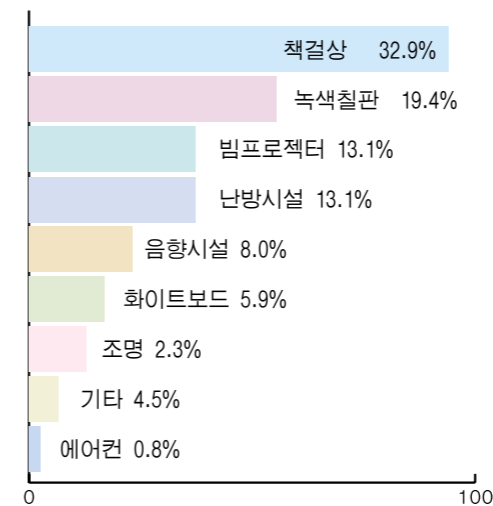


▲ 기존의 책걸상과 교체된 책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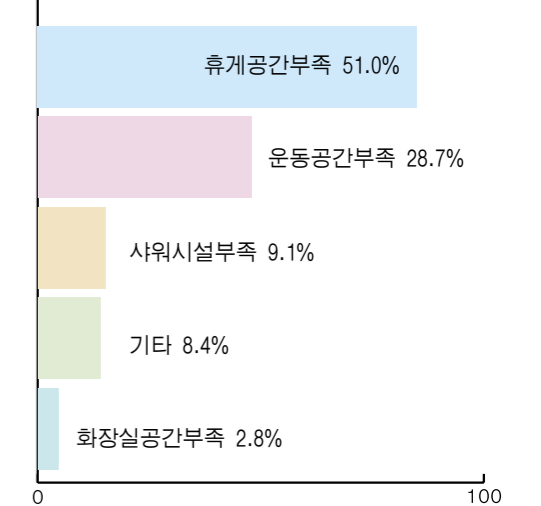


▲ 기존의 녹색칠판과 교체된 화이트보드

### ■ 강의실 시설 중 가장 개선돼야 할 부분은?



### ■ 운동·휴게시설 중 가장 개선돼야 할 부분은?





### 만나고 싶은 동국인 - 동국학술대상 수상한 식품공학과 유병승 교수

## “쉽 없는 열정으로 임하겠습니다”

한다. 국제학술지는 국내학술지에 비해 실험이 어렵고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만큼 학생들에게 실험논문의 제목을 일찍 주어서 졸업 전까지 국제 학술지를 낼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논문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그는 2001년에 쓴 고추장에 관련된 국제학술논문(SCI)인 'RHEOLOGICAL PROPERTIES OF HOT PEPPER-SOYBEAN PASTE(kochujang)'를 꼽았다. 이는 고추장이 이전에 미국에서 연구한 토마토 퓨레(puree)와 물성은 비슷하지만 발효식품이라는 데 착안한 것이다. 당시 국내저널에는 고추장에 대한 논문이 많았지만 국제학술지에는 우리나라 전통 식품인 고추장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

그가 처음 학교에서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여건이 매우 열악했지만 학교에서 종종 지원을 받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나씩 갖춰나가다 보니 지금은 시설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연구용 분석기 자재의 경우 외국의 대학에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이다. 다만 새로운 연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자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현재 유 교수는 전분과 검물질이 합쳐진 생 고분자 물질의 레올로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외국 저널에 아직까지 동양의 관심분야인 쌀 전분에 관련된 논문이 많지 않은데, 그는 4-5년 전부터 이에 대한 논문을 많이 써왔다. 최근에는 고구마 전

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불교에 관련된 식품연구를 병행하고 싶어서 얼마 전 불교가공식품 연구소 설립 계획서를 냈다. 이는 우리학교의 건학 이념인 불교와도 들어맞는데, 사찰음식 중 가공할 수 있는 식품을 연구하고 싶다고 한다.

힘든 연구를 소화해 내면서도 때때로 주위의 말한 마디는 그에게 큰 힘이 된다. 그는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외국에서 공부중인 제자가 수업에서 자신의 논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연락을 해 왔을 때를 회상하며 흐뭇해했다. 또한 미국에 있을 당시 지도교수님이 외국의 학술지에 등장하는 유 교수의 이름을 보고 유 교수가 이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할 때 역시 보람된 순간이다.

유 교수는 학생들에게 전공분야에만 치중하지 말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폭넓은 학문을 익히고 넓은 시야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를테면 사회에서는 식품공학과 관련된 마케팅 개론이나 경영학 개론 등도 요구하기 때문에, 전공에 보탬이 되는 교양을 학창시절에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학교 학생들은 연구보다는 취업을 택하

고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 대학에 가서 새로운 견문을 익히고 세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더불어 새로운 총장님이 오시면서 모든 것이 많이 변했는데, 건학 101주년을 맞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동국대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학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내 전공분야를 계속 살려서 식품 레올로지로 체계적으로 알려진 학자가 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유 교수. 지금처럼 열성적으로 연구에 임한다면 그 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 인물동정

### 4·19 혁명 동지회 회장에

#### 김정결 동문 선임



우리학교 김정결(법학 63졸) 동문이 지난 3월 11일 '동국대학교 4·19혁명 동지회' 제5대 회장에 선임됐다. 4·19혁명 동지회는 4·19혁명 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과 자유, 민주, 정의를 기리기 위해 99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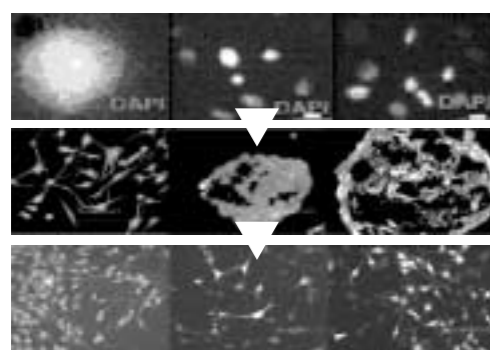
이번 취임과 관련해 김 동문은 “4·19 혁명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뜻있는 모임으로 만들어 나가 지나간 역사적 사실들을 한 점 부끄럼 없도록 동지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유상곤 동문 4·25 재보선에서

#### 충남 서산시장 당선



지난달 25일 우리학교 유상곤(정의 74졸)동문이 재보궐선거에서 충남 서산시장에 당선됐다. 유 동문은 학교를 졸업한 뒤 청와대 행정관, 충남 문화체육국장, 서산시 부시장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상곤 동문은 취임사에서 “서산이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체세포의 역분화 과정.

배아 줄기세포의 한차례 폭풍이 지나간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역분화 줄기세포 기술이다. 그 중심에는 지난 2월 우리학교 일산병원과 협력체계를 맺은 ‘임젠’이 있다. 임젠은 2002년도에 설립되어 줄기세포와 바이오 에탄올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벤처기업이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세대를 걸쳐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야심찬 도약을 준비하며 ‘임젠’을 이끌어 가는 김기동 대표이사의 이야기 들어보았다.

- 역분화 기술을 쉽게 설명한다면.  
= 역분화 줄기세포란 성체세포가 줄기세포로 변환된 것이다. 성체세포란 갖 태어난 아이처럼 완성된 세포를 말한다. 성체세포 고유의 프로그

### 벤처기업 임젠의 김기동 대표이사를 만나다

## 거꾸로 가는 기술로 세계를 향해 가다

램을 유도물질로 자극해 변화시키면 줄기세포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변화된 성체세포는 신경세포, 근육세포, 지방세포 등이 될 수 있다. 세포가 유도물질에 자극받아 줄기세포가 되는 것이기에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역분화 기술이라 부르며 유도분화라고도 한다. 역분화 줄기세포는 채택할 수 있는 줄기세포의 수가 많고 다른 기술에 비해 치료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 또한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성체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천기술이라 주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 우리학교와 역분화 기술을 공동 연구하게 된 이유와 줄기세포 은행의 운영방안은.  
= 현재 양측이 가지고 있는 연구 및 연구 환경,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타 학교에 비해 매우 높았고 굳건했다. 현재 의약품 산업의 돌파구가 세포치료제라는 점과 세포치료제가 향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기술, 역량에 대한 더 큰 가능성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공동연구를 하게 되었다.

줄기세포은행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세포를 보관 하고 이것을 줄기세포로 전환하는 일을 한다. 은행으로 치면 체세포가 현금인 것이다. 성체세포를 줄기세포로 유도 분화시킨 후 환자의 치료목적에 맞는 세포로 분화시키는 일까지 줄기세포은행에서 담당한다. 줄기세포은행은 일산 병원에 공사 중이며 다음 달에 개원 할 예정이다.

-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임젠의 사업은.  
=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의 카타르 재배와 바이오 에탄올을 제작 사업뿐만 아니라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다.

메디컬 클러스터란, 의학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치료기관과 신약개발사업, 산학집단이 모여있는 ‘단지’이다. 임젠의 세포치료제 개발과 인산의 세포은행, 클리닉 셋의 연계도 작은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다. 해외로의 교통이나 배후조건이 좋은 일산을 거점으로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다.

- 바이오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 연구소에 있을 당시 학내벤처에 관여하게 됐을 때부터이다. 우리는 생물학을 기초 학문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옛날에는 화학이 기초학문이었지만 연금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발달되었다. 이처럼 지금은 생물학이 산업적으로 역할을 넓혀가는 시기이다. 문제는 이를 이끌어갈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상업적인 측면까지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꿈을 가지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참고 기다려라’이다. 아직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역량과 규모는 작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세대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지적 환경과 인적자원을 활용하면 앞서나간 서양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 수십 수백 개의 연구가 계속되면 나날이 뛰어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연스럽게

보다 많은 사람이 연구와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성공의 기회가 더 많아 질 것이다. 우리가 인쇄심과 노력을 가지고 끈을 놓지 않는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

- 발전하는 동국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사람은 45세를 기점으로 전·후의 삶이 다르다고 말한다. 45세 이전까지는 가정 생활, 토익·토플점수, 학벌로, 45세 이후에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것이다. 동국대가 100년을 넘어섰는데 그동안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있었을 것이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 온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발전방향보다 과거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면 더욱 발전하는 동국이 될 것이다.

문서영 기자  
syooob@dongguk.edu





# '봄봄' '동백꽃'의 정순이를 찾아서...

지난 4월 28일, 학교 중앙도서관을 통하여 춘천에서 열린 김유정 문학제 문학 기행에 참가했다. 올해 5번째로 열리는 김유정 문학제는 김유정의 고향인 강원도 춘천시 '실레 마을'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실레 마을'은 김유정이 일생 대부분을 보낸 곳이다. 그곳에는 김유정 문학관이 있어 김유정 작가의 일대기, '문장(文章)'이라는 옛 문에 잡지, 그가 사랑했던 여성들의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실레 마을은 그저 단순한 작가의 옛 터전이지 아니었다. 김유정의 작품 세계에 소재를 제공하고 배경이 되어 준, 마을 자체가 작품의 산실(産室)이었다. 혹시 '봄봄'의 무지막한 심술보 붕필 영감을 기억하는가? 마을 가운데 잣나무 숲으로 들어서면 붕필 영감이 살았던 마름집이 있다. 점순이가 크면 성례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나'에게

일만 부러먹는 붕필 영감의 거드름피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참고로 '봄봄'의 붕필 영감은 김유정이 살던 실레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인물을 각색한 것이라 한다. '봄봄'뿐만 아니라 김유정의 대표작 12편이 이곳 실레마을을 무대로 한 작품들이었다. 마을에 머무는 동안 점순이, 응오·응칠 형제 등의 소설 주인공을 만나는 기분이 들었다.

김유정 문학촌 생가 뒤편에 금병산이라는 산책이 있는데 그 능선을 따라 거닐면 작가 김유정의 작품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이다. '봄봄길', '동백꽃길', '만무방길'처럼 소설 제목에서 따온 등산로가 실레 마을을 방문한 이들의 발걸음을 소설 속으로 풍덩 빠지게 한다.

이곳 실레마을은 작가의 생가가 있고, 마을 전체가 작품의 무대가 되는 살아있는 문학 기념관이다. 전국의 많

은 문학기념관 중 유일하게 촌(村)자가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김유정 문학제에서는 산문 백일장, '동백꽃'에 나온 닭싸움 재현, 소설 낭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었다. 여행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 문학제를 충분히 즐겼음하는 여운이 남는다. '봄봄'과 '동백꽃'의 소설 분위기는 해학적이지만 실제 김유정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집안의 몰락, 폐결핵 투병, 생활고 그리고 사랑의 실패, 좋은 일로만 가득찬 생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학적 작품을 남긴 데에는 고향 실레 마을이 큰 힘이 된 것 같다. 삶에 지치고 안정을 얻고 싶을 때, 실레 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어떤가 싶다. 수려한 자연 풍광이 마음을 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김유정 작품 세계를 겪을 수 있다는 셸렘이 있기 때문이다. 장운화(사범대 국교2)



## 너무나 자유로운 전과제도 ... 비교육적 결과 초래 진정한 동국발전 꾀하는 학제개편 고민 기대

한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는 무엇보다도 그 대학의 교수가 얼마나 양질의 연구업적을 쌓고 우수한 학생을 양성 및 배출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 동국대학교의 전과제도는 이러한 대학의 사명을 무력화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대학의 전과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우리대학의 전과제도는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2학기말, 3학기말, 4학기말, 5학기말에 걸쳐 총 4회의 전과를 허용할 뿐 아니라, 전입 및 전출 학생비율도 150%를 허용하는 전무후무한 제도이다. 이러한 전과제도는 우선 학생을 기만하고, 학생이 자신을 기만하게 하며, 나아가 학문을 기만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로 하여금 애초부터 자신이 지망한 학교보다는 세칭 인기학과에 눈독을 들이게 만든다. 다시 말해 이 제도는 학생이 1차 지망한 학과를 인기학과로 전과하기 위한 '전초기'로 생각하게 만든다. 학생들에게 정도(正道)를

가르쳐야 할 대학이 학생들을 오도(誤導)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08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목하 진행 중인 동국대학교의 구조 조정안에 의하면 이와 같은 비교육적 전과제도로 인해 재학생이 줄어든 학과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것도 2006학년도 2학기 및 2007학년도 1학기라는 단 1년간의 수치를 근거로 해서 말이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어떤 부서를 정리할 경우 몇 년간의 실적을 두고 폐쇄여부를 결정하거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대학이 이렇듯 졸속적으로 학과의 운명을 결정해서 되겠는가!

그것만이 아니다. 이번 구조조정계획은 기만성마저 엿보인다. '108프로젝트'에 의하면 구조조정은 "학생 재확보, 취업률, 교육프로그램 혁신노력" 등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학내논의(해당학과 참여)"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조조정은 전적으로 중도포기만을 근거로 해서 획책되고 있다.

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구조 조정안에 의해 희생되는 학과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대학이 문과대학이다. 학교당국은 금년도 서울 캠퍼스의 구조조정인원 총 110명 중 60명, 즉 과반수를 문과대학에서 차출하겠다고 한다. 동국 100년의 중추 문과대학이 시장논리의 칼날에 난도질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학교의 문과대학은 학교당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경쟁력에 있어서도 그 어느 대학에 뒤지지 않는다. 동국대학교의 대외경쟁력이 3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에서도 문과대학의 경쟁력은 10위권을 고수해 왔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냉철히 짚어보아야 한다. 어떤 것이 진정한 동국의 발전을 위한 길인지. 비교육적 전과제도와 비합리적 구조조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임호일  
문과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향	
월 (5/7)	바지락수제비 (2000) 돈삼겹두루치기 (2200) 산채비빔밥 (2000)	삼삼적구이백반 (2200) 모듬볶음밥 (2000) 간짜육 (2000)	원장짜개 (3200) 육개장 (3500) 쭈삼불고기 (3800)	북어계란국 (2500) 베이컨김치볶음밥 (2900) 자장발정식 (2500)
화 (5/8)	건학기념일 휴무			
수 (5/9)	돈육김치찌개 (2000) 쇠고기볶음밥 (2000) 오징어탕수 (2000)	설렁탕 (2000) 제육김치달걀밥 (2000) 날치알참치회덮밥 (2000)	원장짜개 (3200) 김치불고기밥 (3500) 해물찜 (3800)	해물이채국 (2500) 수제돈가스정식 (2900) 전주식비빔밥 (2500)
목 (5/10)	갈비경단 (2200) 된갈비 (2000) 오삼불고기 (2200)	떡만두국백반 (2000) 중국식볶음밥 (2000) 안동찜닭 (2000)	원장짜개 (3200) 돈육삼삼밥 (3800) 삼치구이 (3500)	건새우근대국 (2300) 철관제육꾸꾸미덮밥 (2900) 부추김치채밥 (2500)
금 (5/11)	육개장 (2000) 콩나물비빔밥 (2000) 치킨카레샐러드 (2200)	쇠고기국밥 (2000) 낙지비빔밥 (2200) 오무라이스 (2000)	원장짜개 (3200) 함박스테이크 (3800) 산채비빔밥 (3500)	순만두국 (2500) 참치날치알비빔밥 (2900) 떡볶이불고기 (3500)

금주의 식단

## 열린글터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만평, 4배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 각 단과대학 건물마다 특징을 살렸으면

우리학교에는 마땅히 특징을 살려 나타낸 건물이 없다는 것이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안타까웠다. 명진관과 중앙도서관은 그나마 멋스럽지만 이 둘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건물이 없다.

외국의 대학을 보면 한번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예쁘게 지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대학들은 멋진 건물들이 캠퍼스에 자리해 있다. 물론 겉모양보다는 학교의 내실을 다져야겠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처럼 적지 않은 기간을 보내는 학교인 만큼 건물외관에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무리해서 건물 자체를 뒤바꾸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오랜 시간 사용하는 문화관의 경우 예술대 학생들이 작업하고 생활하는 곳이다. 하지만 한눈에 예술대의 특징을 찾아보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다못해 벽화 하나 없이 건물만 덩그러니 있어 동대입구역과 가깝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별히 좋은 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실이 리모델링된 것을 많이 보았다. 요즘에는 중축공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어 건물의 외관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각 단과대학 특징을 재미있게 나타내면 좋을 것이다. 개성 있게 단과대의 특징을 나타낸 건물들은 학생들에게 시각적 효과와 생기를 줄 것 같다.

그렇다면 문화관은 말 그대로 문화관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 건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의 이미지가 중요해진 만큼 각 단과대의 특성을 살려 건물을 단장한다면 우리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한번쯤 새로운 모습의 캠퍼스를 기대해 본다.  
유정현(예술대 불교미술3)

### 장충문화체육센터 이용시 혜택 부여를

케네디 대통령은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말했다. 올바른 사고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체단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지식의 전달임은 물론 건강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공간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우리학교 중문 근처에는 2004년, 중구청이 개관한 장충문화체육센터가 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독서실과 헬스클럽은 우리학교가 위탁 운영한다. 독서실은 꽤 쾌적하고 공부하기 적합한 시설이며 헬스클럽 또한 최신설비

에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헬스클럽의 한 달 이용료는 5월 1일 3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주변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동국대학교 학생에게는 할인이라든지 다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내에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이 미흡하다. 다른 서울 내 일부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2만원부터 3만원까지 더싼 가격에 헬스클럽 이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학교도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위

해서 장충문화체육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3개월을 신청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할인을 혜택을 부여한다면, 마이리지를 적립시켜서 동국대 내의 생활협동조합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동국대학교도 어느덧 100년의 세월을 넘어 새로운 1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학부생들을 비롯한 많은 동국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애교심을 키워간다. 학교 측에서는 우리 동국인들을 위해서 장충문화체육센터를 잘 활용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동국인의 마음에 대한 보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권창우(사과대 경제2)

### 학교 발전 ... 만족도 높이는 강의개설부터

작년과 같은 축제분위기와 달리 이곳저곳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시위, 학과 개편안으로 인한 독문과 폐과, 사회학과와 성주행 교수 반대시위 등 학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지났지만 2006년의 봄과 2007년의 봄이 나에게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쉽다.

우리학교의 장점을 보자면, 외적으로는 서울 가장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 남산과 가까이 있어 주변환경이 좋고 종로, 동대문, 명동 등 변화가 가까워 지리적 위치로는 다른 어느 대학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내적으로는 인

문학이 발달된 학교로 학계에서도 인정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학교의 모습은 그리 좋고 말할 수 없다.

학교에 입학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 기대했던 바와 차이가 있어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 교과목 선택에 있어 선택의 폭도 좁았고, 교수 한명당 학생이 너무 많고 강의실이 부족하여 좁은 강의실에서 뻥뻥하게 수업이 듣는 등 학습하는 데 있어 상당히 불편한 환경에 처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연세대, 중앙대 등의 예를 보면 교

양과목들이 학생들의 기호에 맞춰 '와인테스팅', '연애학' 등을 개설하지만 우리학교의 경우에는 직전학기의 강의들이 그대로 개설되는 등 선택에 있어 제한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학교의 대외적인 모습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외적인 홍보에도 노력해야겠지만 먼저 내적인 것에 대한 보수가 먼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100년을 갓 낀 학교로서 아직 발전할 가능성은 많이 남아 있다. 학교가 내적인 면에 있어서 먼저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과거에 3대 명문사학으로 일컬어질 때처럼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김지희(사과대 정의2)



### 독자 사진첩

#### 말을 보고 말을 잃다

원훈관 이리수에 깜짝등장했던 이분을 기억하시나요?  
가끔은 싸이코틱하게, 가끔은 미친척! 인생은 즐기니 나름!  
- 이기호(공과대 건축2)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등록금 환불 등 다양한 소식 유익

제1442호 동대신문은 그동안 학교 신문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과 흥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로 채워져 있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유익했다.

먼저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던 '등록금 환불'에 대한 진행상황을 전하며 등록금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환불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학교를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의

미에서 창간기념 설문조사와 대학신문 관련 기획들은 흥미를 끌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나를 비롯해 우리학교 학생들 중 많은 비중의 학생들이 학사일정을 제외한 학교내 사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예전에 비해 학교신문을 비롯한 학내 언론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는 대학언론도 요즘 학생들의 트렌드에 맞춰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 역시 자기가 소속된 학교에 대해 좀더 관심을 기

울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동문인 김정근이나순서 인턴서 기사는 많은 학생들이 꿈꾸는 직업인 '아나운서'에 대해 그 내막을 알려주는 한편, 사회에서 활약하는 동문을 접하게 됨으로써 같은 동국인으로서 자부심을 키울 수 있었던 기사였다. 비록 학생들이 학사일정을 제외한 학교내 사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소재를 잘 살려 기사화 하고,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면 동대신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지금보다 한층 높아날 것이다. 동대신문의 노력을 기대한다.  
정수연(사범대 가교2)

# '한 방향'을 향한 공동의 노력으로 변화와 혁신을

나무에 새잎이 금세 푸르다. 옛그제 봄꽃을 본 것 같은데 어느새 나무에 초록 물감이 올랐다. 나무를 보면 이 계절의 생명이 활기차고 바쁘다는 걸 실감한다. 사람이 활기차고 예외가 아닌 듯하다. 우리 대학이 바빠졌다. 학교 발전을 위한 108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각 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들 중 누구도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 새 학기의 두 달이 지났지만 자그마한 혼란과 불만은 아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성원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학교 발전에 대한 기대, 새로운 도약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 밀려드는 변화의 물결

행정 시스템의 변화, 조직 개편, 인사 혁신, 특성화와 구조 개혁 등 변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부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필자가 매일같이 두 세 차례의 회의를 주재하거나 참석해야 한다. 술자리, 옆을 보거나 뒤를 돌아볼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도 망중환이라고, 원고 청탁 받고 지금 이 순간 변화와 혁신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게 여간 소중한 게 아니다.

우리 학교의 파격적인 혁신 드라이브는 총장 개인의 의지가 이전에 모든 구



**한진수**  
본교 학사부총장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성원들의 잠재된 욕구의 산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 구성원 개개인이 원하는 변화와 혁신은 모습이 제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나 방향만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전체를 수긍한다면 "지금·여기"에서 최선의 선택은 '비슷한 방향'을 '한 방향'으로 만드는 공동의 노력일 것이다.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겪고 있는 변화는 자생적·자발적이라기보다 외부 환경의 변화로부터 적응하기 위한 방책의 성격이 강하다. 변화의 능동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수동적 객체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선택과 집중의 정부 재정지원 정책 강화, 대학 간 경쟁의 글로벌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중요 증대, 대학평가 강화 및 결과 공개 등과 같은 대외환경의 변화는 대학이 선택해야 하는 쪽을 어쩔 수 없이 좁힌다. 대학은 냉혹한 시장에 벌거벗고 나

서라는 시대의 준엄한 요구 앞에 서 있는 셈이다.

## 참여하는 의식 전환의 필요

그러나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의 거울도 보여주고 또 한 편으로 그 속에 비치는 기회도 보여준다.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과 내용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대처하는 게 바로 새로운 기회의 실체이다. 우리 모두 이런 맥락에서 108프로젝트를 바라보았으면 한다. 108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108번회를 연상케 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깨달음을 위한 율령정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시점이다.

변화와 혁신은 향후 몇 년 동안의 단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며, 경쟁이 있는 한 영원히 필요한 작업이다. 마치 시냇물

이 밤낮없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때로 개혁 피로증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멈추고 정체하면 그만큼 또 뒤처지게 된다. 우리는 우리 혼자만 달리는 고독한 질대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대학들과 함께 달리는 상대경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수만 관중들로 꽉 찬 경기장에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달리는 상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동안 이런 경쟁원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게 문제이지 경쟁원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새로운 변화를 기회로

경쟁은 물론 비정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정한 철학만이 경쟁의 본질은 아니다. 경쟁의 본질 속에는 격려와 보상도 있다. 실은 이런 요인이 훨씬 크다. 우리가 우리 내부의 누구에게 비정을 강권하겠는가.

상항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다르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마음먹기에 달렸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긍정적 경쟁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은 조직 경영의 기본이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변화는 새로운 때 의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야말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왔다. 한 방향으로 물길을 만들자.

## 사설

###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5월이다. 내일은 우리 학교 새로운 100년의 첫 개교기념일이다. 동국대학교가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생일을 맞는 것이다. 우리는 한 세기의 역사를 거느리고 있는 유서 깊은 백 한 살이지만, 또 어찌 보면 이제 새로운 한 살이기도 하다. 새로운 한 살이라는 뜻은 지난 백년과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깨침과 다짐과 실천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는 의미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로 보고,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모두의 내면으로부터 솟아나게 하며, 과감한 결단으로 학교를 바꾸어 나가는 길이 새로움의 내용이 될 터이다.

학내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마치 동국대학교라는 이름만 남겨놓고 다 바꿀 태세다. 조직이 이미 바뀌었고, 바뀐 조직에 따른 혁신적 인사 배치가 단행되었으며, 각 부서별 경영 평가제가 곧 도입된다. 자율과 책임을 가진 모든 부서장, 단과대학장들은 지난 백년간 우리 캠퍼스에서 듣도 보도 못한 경영계약이라는 걸 총장과 체결해야 한다. 대기업 본사가 계열사 사장단 평가하는 것과 비슷하다.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저조하면 사장을 교체하거나 과감히 정리해 버리는 게 기업의 생리다. 반드시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기본 구조가 다르지 않다. 이 파격적인 실험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우리 내부에서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주시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 우리는 매우 위협하고 불안한, 파격적이고 희망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모두가 분주하다. 당장 학교 통제할 문제로 캠퍼스가 요란하다. 대학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때문이다. 학문을 육성·발전시키는 기능과,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충돌한다. 학문의 고유한 가치는 시장 경쟁력과 상관없이 지속되어 온 전통이 있다. 그 전통을 온존시키는 게 바로 대학이다. 이것은 시대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대학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대학이라는 조직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다. 소위 소수를 위한 학문이라는 것은 비록 성과를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가, 어디에선가는 필요한 법이다. 그러므로 효율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져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개혁 마인드는 이런 보호 논리와 상충한다. 우리 대학이 그 소수를 떠안아야 할 책무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경쟁력 있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발전 속도를 훨씬 빠르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명분 앞에 소수 학문 옹호론의 목소리는 작아지는 듯하다. 전공의 많은 대학들이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를 떠안은 채 오래 고민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못한 법이다. 공동의 선과 이익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깊이 토론하고, 토론이 끝난 뒤에는 빨리 결정하는 게 최선이다. 독단주의와 개혁 제일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 내부에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무사안일과 구태의연, 이기주의와 보신주의도 배척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새로 한 살을 먹는 우리 학교의 미래가 여기 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자.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생전에 자신의 묘비명을 써서 더욱 유명해졌는데 그것은 묘비명의 유머러스하고 촌철살인적인 성격 때문이었다. 결단을 빨리 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풍자적으로 드러낸 문구는 다음과 같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 달하나 천상에

### 어릿광대의 보이지 않는 연극



**강순애**  
예술대 연극학과 교수

존주전극시대부터 배우(俳優)의 우회(優回)는 골계의 형식을 통해 왕에게 간언(諫言)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우간(優諫)'이라 한다.

보통 골계희(滑稽戲), 장우회, 우회, 소학지희, 시사화극과 불린 우회는 배우가 시사적(時事的)인 사건 혹은 개인을 풍자한다 해도 "말하는 자는 죄가 되지 않고, 듣는 자는 죄를 경계할 만하다(言之者無

罪, 聞之者足以戒)"고 여겼다.

우리나라 선조들도 배우의 기능을 논하는데 있어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서, "옛부터 우회에서 하는 말은 구경하고 웃기 위함이지 아니라, 세상을 교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라고 했고, 어숙권(魚叔權)의 패관잡기(裨官雜記)에는 "배우 같은 자도 능히 탐관오리를 규탄하고 공박할 수 있다" 또는 "배우도 또한 백성에게 유익함이 있다(優亦有益於民矣)"라고 하여 당시의 불문화된 규율은, 배우가 비록 잘못 말해도 죄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배우의 특권이 재단 된 경우가 있었다.

'곡양전(穀梁傳)'에 정공(定公) 10년, 공자가 협곡(傾谷)의 회관에서 제(齊)나라 사람이 우시(優施)로 하여금 노(魯)나라 임금의 막하에서 춤을 추게 하고 우회를 하게 하였는데 공자는 이때 군자를 비웃는 자는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하여 우시의 수족이 잘려 문밖으로 던져지게 되었다(笑君者非當死! 使司馬行法焉, 手足異門而出)。 그 후 공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비난을 받았다.

우리나라 역시 간언할 수 있는 특권으로 인해 목숨을 붙여 있었을망정 곤장을 백대를 맞고 귀양살이를 가야 했던 인물이 연극 '이(爾)'를 시초로 영화 '왕의 남자'에 등장하는 공길(孔吉)이다. 그는 1504년 '연산군일기'에서 "전하는 요순 같은 임금이고 저는 고요(高謫)같은 신하입니다. 요순과 같은 임금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고요와 같은 신하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용재총화(龍齋叢話)' 권3에, 고려 장사랑(長士郎) 영태(永泰)가 충혜왕(忠惠王)을 따라 사냥을 갔을 때 늘 우회(優戲)를 하니, 임금은 그를 물속에 던져 버렸다. 영태가 물을 헤치고 나오니, 임금은 크게 웃으며, "너는 어디로 갔다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 하니, 영태는 "굴원(屈原)을 보러 갔다가 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굴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 "굴원이, '너는 어리석은 임금을 만나 몸을 강에 던져 죽었지만, 너는 명군(明君)을 만났는데 어찌 되어 왔느냐' 하였습시다" 하니, 임금은 기뻐서 은구(銀篋) 하나를 주었다.

이처럼 배우는 코믹한 연동으로 연극이라는 틀을 빌려 한 시대의 문제들을 일

깨워줌으로써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연극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아우구스토 보알의 '보이지 않는 연극'을 상기한다면 우회의 간언은 연극이 현실을 인식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실천적인 무기였던 것과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알은 연극을 철저한 민중 속으로 가져갔다. 가령, 브라질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바비큐를 시켜 먹고, 돈이 없으면서 대신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여 지배인과 실경을 알려 식사종인 4백여 명의 손으로 하여금 이 식당 청소부의 월급이 매우 낮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보알의 '보이지 않는 연극'이다.

배우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바비큐를 먹여지우는 데는 겨우 10분 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값을 치르기 위해 10시간을 일해야 하더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청소부의 월급을 올려주든지 바비큐 값을 내리든지 해야 할 것 아니요?"라며 테이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큰소리로 떠든다. 손님들은 마치 연극 배우 같은 그 사람의 호소에 웃기도 하고 동정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청소부의 월급 문제를 떠들기 시작한다. "그렇군, 너무 적게 받고 있군"하면서 말이다.

## 보리소 제1호를 만들자

낮선 땅 일본.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청년 진창현이 바이올린을 만들겠다고 할 때 그를 받아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포기를 하려니 바이올린을 만들고픈 바람이 너무 컸다. 바이올린 제작자들은 이렇게 귀찮을 해주었다. "직접 만들어보지 않고는 소용이 없다. 책을 이용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무슨 일든 기술은 이론보다 경험이다. 만들어라. 많이 만들어보아라."

바이올린은 무엇보다 나무의 질에 좌우된다는 상식 하나만을 염두에 두고서 그는 운목으로 하나씩 터득해갔다. 임도(林道)를 만드는 노무자로 일하며 나무를 싣고 모으고 연구하면서 무라가 판자집에서 밤이면 바이올린을 만들었다.

가르쳐 주는 스승도, 동료도, 참고서도, 돈도 없는 그가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무조건 제 손으로 제1호 바이올린을 만드는 일밖에 없었다. 제1호 바이올린은 소리로 모양도 영성까지 짝이 없었지만 훗날 동양의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제작하는 바이올린 제작의 제1인자가 되는 첫 발자국이었다.

이리저리 조건을 따지고 재고 겁내고 체념하느라 인생의 제1호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회한을 품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설령 그것이 그 즉시 형편 없는 쓰레기로 치부되더라도 제1호를 무조건 만들어 내라고 젊은 동양의 친구들에게 당부한다. 그래야 2호, 3호가 나오고, 마침내 명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미령**  
역경원연구위원

## 메아리 과유불급

▲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프랑스어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노블리스)'만큼 '의무(오블리제)'를 다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부와 사회적 위세를 과시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가지 있게 여기는 것이 포함된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특별한 아들사랑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8일 아들을 떠날 슬직 종업원들에게 '보복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 씨 등 네 명을 청계산 일대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 부위를 가격했다. 이어 북창동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직접 보복폭행을 하도록 시키기까지 했다. 하지만 김 회장 부자는 이 사건에 대한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 그런가 하면 한화그룹은 지난달 29일 김승연 회장의 경

찰 조사를 앞두고 '김승연 회장의 인간적 면모'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는 회장의 인간적인 면모와 탁월한 경영능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워낙 자식사랑이 큰 심정의 발로'라는 한화그룹 직원의 말은 김 회장의 비뚤어진 자식사랑에 대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답변이다. 평소 의리와 남성다움을 줄곧 강조하며 저돌적인 경영스타일의 보스형 총수로 불려온 그는 자식 경영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 선진국 사회를 지향하는 힘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한다. 자식에게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가르치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김 회장은 사회적 지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부에 걸맞는 도덕적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 아들이 맞았다는데 분한 것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의 총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맞대응한 것은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마땅히 법치주의를 비웃는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정은미 문화부장  
eunmi@dongguk.edu

## 응급상황, 이럴때 어떻게??

② 열차

### 인대 손상 즉시 냉찜질 할 것

열차만 인대가 손상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인대는 관절주위에서 뼈와 뼈가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열차 그 자체는 큰손상은 아니나 동일한 부위의 열차가 반복되면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진다.

※ 응급처치법

① 냉찜질을 해주어 부종과 통증을 줄여주는 게 좋다.

- 인대에 손상을 입을 때는 즉시 냉찜질은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회복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므로 병원에 가기 전에 꼭 해주는 것이 좋다.

② 손상부위에 부종이 있을 경우는 회복이 늦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므로 열차 부위를 높여준다.

-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어 혈액순환도 잘 되고 회복도 빠르게 된다.

③ 열차가 가벼운 경우는 통증과 부종이 사라질 때까지 관절부위에 탄력붕대를 감거나 일방적으로 반기브스라고 불리는 스플린트를 하여 고정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 보건소

## 5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의 습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5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독서를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 일 정**
  - ▶ 일 시 : 5월 16일(수)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특수자료실
  - ▶ 진 행 : 교양교육원 권보태 교수
  - ▶ 신청도서 : 아내가 결혼했다 / 박연옥, 문이당 2006
  - ▶ 정 원 : 11명
- 신청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관광>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순으로 모집하며 토론도서 관련 토론회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함이다.
- 유의사항** : 선정도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독서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a href="http://www.dgupress.com">http://www.dgupress.com</a>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인터넷 동국대학교 <a href="http://www.dongguk.edu">http://www.dongguk.edu</a>
편집장 강지혜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 새로운 100년 그 힘찬 도약 함께 펼시다!



동대신문 학생기자, 교육방송국(DUBS) 국원, 영어잡지 The Dongguk Post 학생기자, 우리학교 홍보도우미 '동감' 이 앞장서겠습니다!